

정책연구 2007-8

지방외교시대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2007. 12

제주발전연구원

발 간 사

우리나라는 지난 60년 동안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다른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국제교류 협력을 추진해 왔고, 아울러 국제교류의 성과를 통해 국가의 여러 가지 분야(예컨대, 정치, 경제·통상, 교육, 문화 등)에 발전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 흐름이 가속화되고, 특히 신자유주의 시장개방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다방면의 국제교류는 더욱 중요한 국가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제교류는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외교적, 경제적 그리고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국제교류는 문화, 예술, 그리고 학술 분야에 국가 간 상호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더구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경쟁력의 제고, 지방의 국제화 수준의 향상,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교류 협력 사업들을 활성화시켜 외국의 지방정부들과 자매결연 및 각종 교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는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제교류 협력 증진을 통하여 제주의 국제화 수준을 더욱 향상시켜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달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바로 그런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07년 12월

제주발전연구원장 허 향 진

목 차

제1장 연구개요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4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5
제2장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이론 고찰	6
제1절 글로벌(Global) 시대의 국제교류	6
1. 21세기의 세계적 조류	6
2. 국제교류협력 일반 개요	13
제2절 지방화 시대의 국제교류	22
1. 지방화 시대 개막	22
2. 국제교류의 필요성	23
제3절 제주특별자치시대의 국제교류	27
1.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	27

2. 대외적 지위 및 권한	30
3. 국제교류와의 관계	35
제4절 해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사례 고찰	37
1. 중국 하얼빈시의 국제교류	37
2.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38
3. 일본 아오모리현의 국제교류	39
4.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40
제3장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실태 및 평가	42
제1절 우리나라 국제교류 실태 분석 및 평가	42
1.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연혁	42
2. 지방정부 국제교류 실태분석	43
3. 지방정부 국제교류 평가	50
제2절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협력 실태 분석	53
1. 법적 근거	53
2. 조직 및 인력	54
3. 교류 현황	55
제3절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 실증 평가	58
1. 조사의 설계	58
2. 조사결과 분석	59

제4장 국제교류협력의 발전 기본방향	82
제1절 접근구도	82
제2절 기본방향	84
1. 기본방향	84
2. 기본원칙	85
제5장 국제교류협력의 발전 실천전략	86
제1절 체제 정비로 국제교류의 내실화 추구	86
1. 자치단체의 조직 정비 및 전문인력 배치	86
2. 국제교류의 충분한 예산 확보 및 계획적 예산 집행	87
3. 제주국제교류협력지원협의회 구성	87
4. 제주국제교류재단 설립	91
5. 글로벌화를 주도할 인재 육성사업	94
6. 내향적 국제화 기반 구축	96
제2절 평화섬에 근거한 제주교류의 브랜드화	97
1. 국제평화교류 지원체계의 구축	97
2. 다문화 공생사회의 구현 : ‘외국인과 함께 사는 평화의 섬’	99
3. 남북 평화네트워크의 활성화	100
4. 동북아 평화 네트워크의 구축	102
5. 지방자치단체 국제협의체 활동 및 국제평화회의의 활성화	107
제3절 다차원적인 국제교류의 다양화	111
1. 교류지역의 저변 확대	111

2. 교류분야의 다양화 도모	112
3. 교류주체의 다원화	115
4. 민간교류의 선진화	115
5. 국제기관과의 협력 강화	116
제4절 제주발전에 기여하는 실용적 국제교류	117
1. 상호실익(win-win)적인 국제교류 추진	117
2. 외국자본 및 다국적기업의 사무소 유치	117
3. 제주산업의 국제화 전략 추진	117
4. 국제교류의 블루 오션(Blue Ocean) 전략 추진	119
5. 아시아 도서 공동협력 사업 추진	120
제6장 요약 및 결론	121
▣ 참고문헌	124
▣ 부록 : 설문조사표	127

표 차 례

<표 3-1> 국제교류 대상 국가 및 자치단체의 현황	44
<표 3-2> 자치단체 유형별 교류영역별 국제교류 현황	47
<표 3-3> 자치단체별 국제교류 현황	48
<표 3-4> 제주특별자치도청 교류 현황	56
<표 3-5> 행정시 협력관계 현황	57
<표 3-6>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60
<표 3-7>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등 협력관계에 대한 인지정도	61
<표 3-8> 외국 지역과의 국제교류에 참여해 본 경험	62
<표 3-9> 국제교류에 참여해 본 영역 1순위/2순위 분포	63
<표 3-10> 민간부문의 국제교류사업 정도	63
<표 3-11> 민간부문의 교류사업이 많은 1순위/2순위 영역 분포	64
<표 3-12> 민간부문의 국제교류사업이 적은 이유(1순위/2순위)	65
<표 3-13> 향후 국제교류의 중요성 정도	65
<표 3-14> 국제교류 담당인력 충분 정도	66
<표 3-15> 국제교류 예산의 충분 정도	66
<표 3-16> 국제교류가 제주발전에 기여 정도	67
<표 3-17> 향후 국제교류의 필요한 지역(1순위/2순위)	68
<표 3-18> 시민단체나 전문가의 의견청취 여부	69
<표 3-19> 민간과의 협력관계 구축여부	69
<표 3-20> 제주도민들의 국제교류 개방의식 정도	70
<표 3-21>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교류의 필요성 정도	70
<표 3-22> 국제교류의 형식적 경향에 대한 인식 정도	71
<표 3-23> 국제교류의 성과 평가	72

<표 3-24>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내부체제 정비의 필요 여부	73
<표 3-25>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개방의식 필요 여부	73
<표 3-26> 향후 국제교류의 실용적 접근 필요성 여부	74
<표 3-27> 향후 국제교류 추진에 역점 분야 (1순위/2순위)	75
<표 3-28> 향후 국제교류의 중심 주체	76
<표 3-29> 향후 제주국제교류협력지원협회의 구성 필요성	76
<표 3-30> 민간교류 활성화의 필요 여부	77
<표 3-31> 국제교류에서 민간교류 지원시 참여 의향	77
<표 3-32>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기관 지원 방안	78
<표 3-33> 국제교류에서 민간교류 활성화시 가장 필요한 사항	79
<표 3-34> (가칭)제주국제교류재단 필요 여부	80
<표 3-35> (가칭)제주국제교류재단의 설립 형태	80
<표 3-36> (가칭)제주국제교류재단이 설립시 역점 분야	81

그림 차례

<그림 1>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한 접근구도 83

<그림 2>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교류 기본방향 및 원칙 85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오늘날 세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하나의 지구촌(Global village)을 형성하고 있음.
- 이런 지구촌 시대에 우리나라도 정치의 세계화, 경제의 세계화, 그리고 문화의 세계화 현상들을 실제로 체험하고 있음.
- 이런 세계화와 더불어 나타나고 있는 또 다른 현상이 지방화임. 이제 지방은 국가의 보호 울타리에서 벗어나 경쟁의 단위로 부각하고 있음.
- 이런 지방화시대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계화의 흐름에 적응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음.
- 이런 노력 중의 하나가 바로 국제교류를 통한 지역경쟁력 확보임.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국가차원의 국제교류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과 부합된 국제교류를 통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물론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차원에서도 국가 수준에 못지않게 외국의 국가 및 지방정부 그리고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단체들과도 나름대로 상호 협력과 교류를 전개해 오고 있음.
-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화 혹은 개방화 추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노력(예컨대, 각종 국제기구 가입, 정부 및 지자체장의 외국 방문, 외국기업의 유치, 민간단체 상호 방문, 국

제화 인적자원 육성, 공무원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 개설, 외국 선진 사례의 벤치마킹 방문 등)들을 경주해 오고 있음.

- 국가와 국가, 국가와 지역, 지역과 지역이 다양한 형태의 국제화 네트워크는 결국 탈냉전 및 탈이데올로기 정치환경, 교통 및 통신의 발달, 정보화사회, 인터넷 문화의 전 세계적 확산, 신자유주의 경제 시장체제의 세계화 등에 의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 특히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시장개방에 의한 경제패권주의 경쟁은 국가 혹은 지역 차원에서 생존전략의 문제로 귀착되면서 국가 혹은 지역이 경제의 세계화를 채택하는 것이 하나의 발전모델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 그런 맥락에서 국가 혹은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 경제의 세계화 혹은 국제화 전략을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경제의 세계화는 다국적 기업 혹은 초국적 기업들의 경쟁과 지배를 강화시켜 결과적으로 국가·지역간 양극화 문제를 발생시키고, 경제의 종속,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등이 초래된다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세계화는 경제교류협력 증진을 촉진시켜 지역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강력히 추진되는 경향을 엿 볼 수 있음.
- 그런 맥락에서 경제의 세계화는 다른 분야의 국제화를 촉진시켜 국가·지방발전의 융합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반대로, 정치, 사회 및 문화 분야의 국제교류 증진은 국가 및 지역의 경제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이러한 국제화 현상과 파급 효과가 예외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발생하고 있음.

- 사실상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고, UNESCO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예컨대, 행정, 경제, 문화 환경 등)에서 국제교류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왔음.
- 특히 제주가 21세기 비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완성은 그 자체가 개방 속에서의 교류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강한 실천의지를 담고 있음.
- 즉, 국제자유도시는 사람, 상품, 자본 그리고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제교류협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임.
-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이 가속화되고 특별자치도가 진전됨에 따라 제주지역의 국제화와 교류는 한층 강화될 수밖에 없음.
- 2006년 8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11개 국 18개 지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이처럼 국제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한 정책적 의지와 실천은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국제자유도시로서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 더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동북아 관광휴양 중심지역으로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전략에 의한 국제화 추진이 필요한 시점임.
-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대상 국가가 중국, 일본, 미국에 편중되어 왔음.
- 그리고 국제교류 형태도 행정운영상 인적·문화교류 등의 자매결연 형태로 정형화되어 실제로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적 추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적 향상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국제교류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있으나, 외국사례를 단편적으로 소개하고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정도이며 적극적인 지원기능이 부족한 상태임.
- 이제 제주특별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스스로가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과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제주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교류의 거점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선도할 수 있는 지정학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임. 이런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국제교류 활성화는 필요함.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다른 국가 혹은 지방정부 간에 상호교류를 활성화시켜 향후 경제발전, 지역발전, 주민의 복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협력 정책 및 프로그램들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목적

- 첫째,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매·우호도시 간 행정 및 민간교류 현황 및 실태 분석을 통하여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
- 둘째,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협력과 관련한 국제화 정책, 교류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도민의 주관적 인식 및 평가를 통해 향후 국제교류협력 정책 방향을 제시함.
- 셋째, 공공 및 민간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다각적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정책사업 및 정책 프로그램을 발굴·제시함.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공간적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전 지역

○ 내용적 범위

- 국제화의 개념적 정의
- 지방의 국제화 필요성과 의의
- 우리나라 지방의 국제화 실태와 정책 내용 분석
-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지방의 국제화 관계
-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 운영성과, 실태·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제주의 국제화 및 국제교류 정책 및 협력사업 등에 대한 실증조사 분석
- 제주의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제시

2. 연구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구체적 실천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헌조사, 사례고찰, 전문가 포럼 등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였음.
- 문헌조사를 통해서 국제교류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음.
- 여타 지역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례고찰을 통해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음.
- 연구의 타당성 및 실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제2장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이론 고찰

제1절 글로벌(Global) 시대의 국제교류

1. 21세기의 세계적 조류

가. 세계화와 지방화

- 오늘날이 세계화의 시대인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임. 오히려 세계화라는 단어 자체가 진부한 느낌마저 드는 것 또한 사실임.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음.
- Scholte가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화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이 영토적 단위로부터 상대적으로 단절되면서, 점차적으로 인간의 생활이 세계를 하나의 장소로 보고 활동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음.
- 즉, “세계화는 기술의 진보와 경제활동 집약화의 증가를 통해 세계를 압축시키면서, 국가의 자율성을 쇠퇴시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세계화는 또한 지구의 시간과 공간 개념의 변화와도 관련됨.
- 지역수준의 상호작용이 지구적 네트워크에 포함되기도 하고, 공간적 면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국내와 국외의 경계선을 흐리게 만들고 있음.
- 이러한 세계화 과정은 다양한 현상들을 포괄적으로 내포하게 됨.
- 이를테면 세계화는 주로 국가간의 상호의존성과 국경선을 가로지르는 상호접촉의 증가와 관련되는 국제화임.

- 개방과 통합된 세계경제를 창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강요하는 각종 규제를 제거하는 과정으로 보는 자유화임.
- 지구 모든 곳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목적과 경험들이 확산되는 현상이 보편화됨.
- 미국적 기준의 세계적 확산으로 여겨지는 서구화 및 영토적 장소 및 거리가 이전과 같이 중요시 여겨지지 않고 그 영향력이 감소하는 탈영토화라는 현상을 포함하고 있는 것임.
- 이러한 세계화 현상의 근원에 대해서는 일부 구조주의적 국제정치학자들은 세계화가 이미 수세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여기지만, 또 다른 패러다임의 학자들은 이를 비교적 최근의 현상으로 여김.
- 세계화를 최근의 현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첫째, 세계화가 냉전의 종결에서 시작되었다고 여김.
 - 냉전체제의 붕괴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간의 장벽이 붕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데올로기적 블록간의 장벽이 파괴됨을 의미함.
- 둘째, 세계화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확산과 관련된다고 생각됨.
 - 국가의 시장경제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적 경향으로 국가의 역할과 기능은 다양한 방면에서 축소되면서, 예전의 국경선이 갖는 의미를 반감시키고 있음.
- 셋째, 세계화는 교통수단의 발전과 정보통신혁명과 관련된다고 판단한다.
 - 이러한 부문의 발전은 시간적 격차와 공간적 거리를 축소시켜서 자본주의의 확산 및 공간적 지구촌화를 만들어냈음.
- 이와 같이 냉전의 붕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확산 및 교통 및 정보통신의 혁명이 세계화의 중요한 배경 내지는 원인으로 작동했다는 것임.

- 1990년대에 들어서서 동아시아 국가는 냉전의 붕괴와 함께 새로 등장한 외부로부터의 압력, 즉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도한 흐름 아래 밀려드는 신자유주의의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하여 내부를 탈바꿈시키는데 온 힘을 경주해야만 했음.
- 세계화와 정보화의 흐름은 중앙정부의 내부개혁에 멈추지 않고, 지방정부의 권력주체로의 대두와 자기결정에 따른 성장 발전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추동해 왔음.
- 세계화는 한편으로는 초국가적인 행위자를 등장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상위정부에서 하위정부로의 권력이전 (Devolution of Power)을 촉진시켜 왔음.
- 이제 중앙정부가 국가의 모든 것을 관장하던 중앙집권 관행은 줄어들고, 지방에 관한 것은 지방에 맡기는 지방분권체제로 정치·행정 체제가 변화되고 있는 것임.
- 중앙중심의 일극체제나 중앙과 지방이라는 양극화 개념은 줄어들고 지방자치단체와 기업과 주민 및 NGO 등 각각의 개체를 연계하고 이들을 공히 중요시 하는 다극화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임.
- 그리고 획일적이고 균일적인 가치정향도 다양성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
- 이러한 다극화 혹은 다양화 현상,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 용이성의 확대, 시·공간의 거리 단축 등은 중앙 중심의 정치·행정 행위를 전환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그러므로 다극화사회의 전환적 기로에서 선 지방자치단체들에게는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함.
- 따라서 과거 중앙의존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고유의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해야 하는 과제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주어졌음.

나. 국제화와 국제교류 확대

1) 국제화 추진 배경

- 국제화 즉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어 사람·물자·문화·정보가 국경을 넘어 보다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는 현상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초래된 것으로 이해됨.
- 첫째, 기술 혁신과 그에 따른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다. 둘째, 산업화의 진전과 국경을 넘는 경제 및 사회가 출현함에 따라 단일국가의 독립적인 활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이 대두되게 되었다는 점임.
- 셋째,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 그들 국가내의 기업 등 선진자본 세력의 의도적 노력임.
- 종합하면 자국이익을 위한 선진국의 움직임과 세계무역기구체제(WTO)의 출범에 따른 피할 수 없는 개방이 국가적 측면의 국제화 배경이라면 자치단체간의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전면적인 자치시대 개막이 국제화의 국내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음.

2) 국제화 추진 목적

- 국제화는 국가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법 또는 전략으로서 그 존재 가치가 있음.
-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면 국제화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은 기존의 국가발전전략에서 국가발전을 통한 이익의 지역분산 전략이 국제화 시대에서는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전개해야 할 국제화의 추진 목적은 첫째, 국제화를 통하여 지역산업,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둘째,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통한 견문 및 시야를 확대하기 위한 것임.
- 셋째, 국가외교의 보완임.
- 넷째, 문화가 다른 다양한 민족과의 교류를 매개로 주민의 국제인식 및 국제이해를 함양하는 것임.
- 다섯째는 국제화를 통한 지역정보 수집 및 활용임.
- 여섯째는 의료, 기술협력, 평화 환경보호, 인권보호활동의 교류이며, 일곱째는 다각적인 국제교류활동을 통해 종래의 중앙집권체제를 지역에서 변화시키고, 다양한 행정 분야의 지역분권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조성하는데 있음.

3) 국제화 유형

- 국제화를 방향성에 따라 개괄적으로 구분하면 내향적 국제화(inward internationalization)와 외향적 국제화(outward internationalization)로 구분할 수 있음.
- 국제화하면 대개 국제교류와 협력, 국제통상, 외자·투자유치 등 외향적 국제화를 생각하기 십상임.
- 그러나 외향적 국제화 못지않게 내향적 국제화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함.
- 외향적인 국제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내향적인 국제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임.

가) 내향적 국제화

- ‘내향적 국제화’는 우리의 의식이나 제도를 지구적이고 보편적인 수준(global standards)으로 전환하고 우리 내부의 수용능력이나 대응 태도를 국제 수준에 맞게 고쳐나가는 과정을 의미함.
- 즉, 우리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의 생활의 질을 높여 나가는 것이 내향적 국제화의 기본이고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음.
- 내향적 국제화를 하드웨어 측면에서 보면, 광역과 기초 혹은 시·군·구 등에 따라 수준차이가 있겠지만, 아직도 그 수준이 낮은 편임.
- 광역단체가 외국어판 홍보책자를 펴낸 것도 1990년 후반의 일이며, 전문성 없이 만든 경우가 많음.
- 일본의 경우 각 자치단체마다 ‘외국인생활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있음.
- 여기에는 긴급전화번호, 간단한 전화번호, 간단한 영어·일본어·한국어문답, 구급인력서비스, 외국어 의료정보서비스, 병원에서 사용되는 일본어는 물론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외국인 친환경 조성에 있어서 외국인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보다는 외국인이 자국민의 일원으로 아무런 불편을 겪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내향적 국제화의 핵심은 바로 생활공간 자체를 ‘외국인 친화적으로 만드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 차원에서의 내향적 국제화 즉 정치적, 경제적, 법률적, 문화적, 사회적 제도 등 외국인의 불편부당함을 최소화해 나가야 함.
- 외국인도 자국민처럼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할 것임.

나) 외향적 국제화

- ‘외향적 국제화’란 외국과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촉진하는 국제교류와 협력활동, 경제교류 등을 의미함.
- 세계경쟁력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스위스 평가기관(IMD, 국제경영개발원)에 의하면 한국의 국제화 수준은 1996년에는 45위, 1998년에는 46위까지 추락하였음.
- 1999년부터는 상승세로 돌아서 2000년에는 30위로 호전되었다가, 2004년에는 다시 35위로 떨어진 바 있음.
- 우리나라의 국제화지수가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우리 사회가 점점 개발되고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함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아직도 폐쇄성이 잔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오늘날 국가 간의 경계가 무의미할 정도로 365일, 24시간 수시로 국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과거에는 외국과의 관계가 대부분 중앙정부의 단일 외교창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나 일선 행정기관이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외국상대기관과 직접적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4) 지역발전과 지방정부 국제화와의 관계

- 효과적인 지역발전의 촉진 즉, 민간주도의 국제화가 성숙될 때까지 자치단체는 지역의 국제화에 촉매제 역할을 맡아야 함.
- 효과적인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진은 다음과 같은 지역정부의 역할이 요구됨.

- 첫째, 국제화를 지향하기 위한 지방정부 내부의 추진체제를 정비하고 종합적인 정책 형성, 시책 개발, 실시에 필요한 종합조정기능의 역할을 강화해야 함.
 - 둘째, 계획 수립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폭넓은 참여와 협력을 통해 민관일체의 종합적인 국제화를 추구해야 함.
 - 셋째, 지역 활성화와 지역의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시각 아래 인재육성, 법·제도적 정비, 국제화 기반시설 구축 등 하드·소프트적인 지원체제의 정비가 요구됨.
 - 넷째, 기능적인 측면에서 민간단체의 조직에 일정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협력, 중앙과의 원활한 업무협조 모색 등의 역할 수행이 전제되어야 함.
- 요컨대 국제화로부터 지역화의 동기가 부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화의 성공을 위해서도 국제화를 지향할 필요가 있음. 그러므로 지역주도의 발전전략은 국제화의 맥락 속에서 논의되어야 함.
 - 지역발전의 촉진과 지역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 지역이 돌파구를 국제무대에서 찾아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제적으로 경쟁해 나갈 수 있는 지역발전 전략 수립이 요구되는 것임.

2. 국제교류협력 일반 개요

가. 국제교류의 의의 및 효과

1) 국제교류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의의는 어떤 지역이나 자치단체가

- 다른 지역이나 단체를 서로 돕기 위하여 서로 밀접한 유대관계를 맺음.
- 즉, 외국의 도시 상호간에 제휴하여 그 이해와 신뢰를 깊게 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에 초대 및 친선교류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과거의 국제교류는 지금보다는 훨씬 제한적이고 편향된 국제화의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었음.
 - 현대의 국제교류는 통신과 교통수단 등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세계의 여러 나라나 기관이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훨씬 대등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으며, 국제교류의 의미도 국제통상이나 외교관계를 넘어서 다원화되고 있음.
 - 국제교류의 정의를 다시 내려 보면, 인종, 종교, 언어, 체제, 이념 등의 차이를 초월하여 개인, 집단, 기관, 국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각각의 우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이익 도모 등을 목적으로 관련 주체 상호간에 공식·비공식으로 추진하는 대등한 협력관계를 말함.
 - 외교가 국가와 국가 간의 법적 계약이며 교섭활동이라면, 현대적 의미의 국제교류는 다양한 주체간의 다양한 형태의 협력행위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국제교류는 외교적 차원의 한정된 교류보다는 훨씬 폭넓고 다양한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음.
 - 또한 국제교류는 사람, 상품, 자본, 정보가 국경을 넘나드는 쌍방향의 흐름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의 도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기구들과 단발적 또는 지속적으로 인적·물적 교류를 행하는 것을 의미함.
 - 그리고 국제교류는 흔히 국제협력과 상호 동일하거나 아니면 연속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간 국제협력은 지역의 과제 또는 지역을 초월한 세계공동체의 발전·복지·환경 보전 등 공통의 목표 및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지원을 하거나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함.

- 국제교류는 곧 국제협력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국제협력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상호 작용을 의미하는 것임. 때문에 흔히 ‘국제교류’와 ‘국제교류·협력’이 혼용되는 것을 볼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활동은 각국의 자치단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필요한 문화, 정보·자료, 인력, 자원 등을 서로 교환하거나 교류함으로써 상호 공동 이익을 도모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제고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이러한 국제교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내의 모든 단체와 계층이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이와 같이 자치단체 국제교류는 국제적으로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치단체간 상호관계성을 총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자치단체간 국제교류를 행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자매결연’ 사업임.
- 자치단체 상호간에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상대 자치단체 및 주민들과의 인적·물적 교류로 이어지고 이것이 문화 교류를 포함한 다각적인 국제교류 및 협력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장점이 있음.
- 이 때문에 정부는 자치단체들이 외국의 자치단체들과 자매결연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행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 규정을 제정하여 자치단체들의 자매결연 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자매결연 절차는 과거 내무부 예규 제617호(1985. 7. 1. 제정)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2년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내무부 훈령 제1057호)이 새롭게 제정되었다가 2004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훈령이 폐지됨.
-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짐.

- 우선 대상 도시가 선정되면 자치단체장 친서 등의 형태로 상대 지역의 교류 의향을 타진함.
- 양 지역간의 교류 의사가 확인되면 실무적인 차원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교류사업 계획을 작성함.
-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일정기간 사전교류를 실시한 뒤 상호 자매결연 체결 의사가 확인되면 각각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자매결연협정서’를 작성함.
- 양 자치단체 대표자의 공동서명을 거쳐 공식적인 자매결연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임.
-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사업은 국가간의 지리적 국경을 넘어서서 인간관계, 기술적, 문화적, 경제적 교류로 이어지고 국제화/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점차 확대되어 오고 있음.

2) 국제교류의 효과

- 일반적으로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 및 이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는 법·제도 및 정치·행정의 민주화와 합리화 과정을 보다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줌.
 - 둘째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 줌.
 - 셋째는 전 세계의 자치단체들과 국제교류·협력관계를 맺음으로써 지역 이미지가 제고되고 지역사회 문화의 보편화가 앞당겨질 수 있음.
 - 넷째는 지역 주민의 시야 및 감각을 효과적으로 국제화시킬 수 있게 됨.
 - 다섯째는 지역의 정체성(identity)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협력과 단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임.

- 여섯째는 국제적 이해 및 우호관계 증진을 통하여 상호 공통의 문제들을 해결함은 물론 인류 공동체의 평화 및 발전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나. 국제교류의 유형

1)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가) 국제교류와 자매결연

- 국제교류는 그 방향성에 있어서 양면성 또는 상호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 즉, 하나의 방향은 해당 지역에서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의 방향은 해외에서 그 지역으로 진입해 오는 것임.
- 그러므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제 교류를 행함에 있어서 양방향의 교류와 협력이 가능한지 또 그 방향성에 따라 국제교류·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해야만 하는 것임.
- 이러한 의미에서 자매결연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오래 전부터 활용되어 왔음.
- 자매결연이란 당사자 상호간에 인적·물적 교류는 물론 다방면의 종합적인 교류를 위해 도시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형제(자매)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함.
- 자매결연은 그 목적 및 속성상 체계적인 지역의 국제교류를 수반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도 있음.
- 그러나 지자체의 거의 모든 국제교류 활동이 자매결연을 기초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교류 활동과 자매결연 활동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음.

나)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의 유형

(1) 행정·인력 교류

- 흔히 자매도시간 행정 및 인력 교류에는 단체장 상호 방문, 공무원의 연수, 공무원의 교환 근무, 시찰단 방문, 행정정보와 경험의 교환 등이 있음.
- 자매도시간 공무원의 연수는 교통, 환경, 사회복지, 지역경제, 농업, 보건 등 전문분야의 실무담당자를 상호 파견하여 관련 부서에서 연구시키는 것으로 실무담당자의 업무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공무원의 교환근무는 직원을 상호 파견하여 양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의 창구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임.
- 상대 지역의 시찰이나 공무원의 연수 및 파견근무를 통하여 상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정보와 경험을 교환하고 행정시스템과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음.

(2) 경제·통상 교류

- 자매도시 교류를 통한 경제·통상 교류는 당사자간에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 지역이 상호 투자 및 무역 거래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함.
- 자매도시간 경제·통상 활동으로는 시장개척단의 파견이나 박람회의 개최, 해외상설 전시장의 설치 등이 있음.
- 그리고 자매도시의 투자요건 즉, 노동여건, 해외시장의 접근가능성, 인센티브, 부존자원 등 제반 여건이 유리할 때에는 상대도시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고, 외국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3) 학술·예술 및 문화 교류

- 문화 및 학술·예술교류는 지역주민에게 자매도시의 문화·예술을 공유하여 양 지역주민의 상호 신뢰와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
- 문화·예술 교류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상대 문화를 소개하는 것은 주민의 문화·예술 생활을 향상시키는 하나의 방안이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도 도움이 됨.
- 문화 및 학술·예술 교류에는 민속축제 참가, 전통예술단 공연, 미술 작품전 및 사진전 개최, 전통무용단 공연, 자매결연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학술 교류 및 학술대회의 공동 개최, 도서 기증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4) 청소년·체육 교류

- 청소년 교류는 세계문화 및 외국에 대한 청소년의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교류로서 자매도시간 학생 교류 및 공동 연수, 스포츠 교류단 파견, 친선 스포츠 경기 개최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간담회와 홈 스테이(Home Stay)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일상생활과 취미 활동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음.
- 체육 교류는 흔히 자매도시간의 우호 증진을 위하여 상호 스포츠 교류단, 친선 프로팀을 파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5) 기타 친선·교류활동

- 자매도시간 상징 사업으로 자매도시 전시관의 개관, 상호 공원의 조성, 자매도시의 이름을 딴 거리명명식 등이 있음.
- 그리고 자매도시의 재난시 원조 또는 성금 전달, 동물의 교환, 명예 박사학위의 수여, 자매도시간 의료봉사 활동, 명예시민증 수여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

2) 경제·산업 교류

-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통해서 경제·통상 교류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대규모의 투자 유치나 무역 교류 활동은 자매결연 도시를 포함하여 전 세계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이루어지게 됨.
- 이러한 의미의 경제·통상 교류는 기업 및 민간 부문의 재화·자본·기술·정보가 국경을 초월하여 자유로이 이동·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 과정 속에서 지역 내 기존 산업의 고도화 및 새로운 산업의 도입·육성이 이루어지게 됨.
- 투자 활동과 관련하여 외국으로부터 해당 지역을 향하여 이루어지는 국제 교류는 외국 투자의 유치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지역으로부터 외국을 향하여 이루어지는 국제 교류는 해외 투자를 통하여 이루어짐.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주로 산업 시설 및 사업체의 설립을 통한 외국 투자의 유치이며, 이를 위하여 효과적인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투자 유치는 세수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의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 내 생산부품의 이용, 고용유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 균형있는 지역개발 등 많은 효과가 있으며, 지역의 수출 증대 및 지역 주

민의 세계화 마인드 형성 등에도 효과가 있음.

- 투자 교류 외에 상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고 또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무역 교류도 중요한 물적 국제교류의 수단임. 지방의 경제·통상 교류는 사실 수출 확대를 통하여 지역 경제의 성장 및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 것임.

3) 민간 교류

- 민간교류라 함은 각 지역의 대학 및 학술문화단체 그리고 예술단체 등의 민간단체, 시민운동단체 나아가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민간인들 간의 교류를 의미함.
- 민간 국제교류는 교류 유형의 정형화, 형식화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기관 위주로 국제교류를 실시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동시에 지역의 국제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이러한 민간 국제교류의 주체로서는 대학, 연구기관, 민간예술단, 시민·사회단체 등이 있음.

제2절 지방화시대의 국제교류

1. 지방화시대 개막

- 세계화의 이른바 국가중심성의 탈피가 국내적으로는 탈중심성이라는 현상과 함께 발생하고 있음. 이른바 지방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임.
- 사실상 “지방화는 탈국가적이며 지역사회 위주로 공동체를 형성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음.
- 세계화라는 전지구적인 환경 변화는 탈국가화를 촉진시키면서 중앙 정부가 모든 것을 관계하는 중앙집권의 관행들이 점차 축소되면서, 지방과 관련되는 것은 결국 지방분권체제로 정치 및 행정체제가 변화되고 있는 것임.
- 실제로 지방화는 “지역사회 공동체가 정치적 의사결정과 집행, 경제적 자원의 관리, 문화의 창조 및 유지 등의 공동체 활동에 대해 중앙 중심의 통제로부터 지방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권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세계화는 지방화의 촉진요인으로 작동한다. 예를 들어 세계화 시대의 신자유주의적 경쟁은 결국 지방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임.
- 반면, 세계화 시대에서 지방화의 필요성은 다양성 제고의 한 표현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함.
- 세계화시대에는 중앙 중심의 일극체제나 중앙과 지방이라는 양극화 개념은 줄어들고, 지방자치단체와 기업과 주민 및 NGO 등 각각의 개체를 연계하고 이들을 공히 중요시하는 다극화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
- 그리고 획일적이고 균일적인 가치 정향도 다양성을 수용하고 존중하

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

- 세계화시대의 지방화를 세계화에 대응하는 경쟁력의 제고에서 모든, 다양성을 체득하는 과정에서 모든 상관없이 분명 세계화와 지방화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할 것임.
- 이를테면 세계화와 지방화를 실상 세방화(Glocalization, 世方化)로 표현하는 방식이 그 좋은 예가 됨.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화와 지방화는 결국 동전의 양면과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임.
- 사실상 세계화와 지방화의 관계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구호 중의 하나인 “전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자(Think Globally, Act Locally)”는 어쩌면 지금은 진부하게까지 받아들여지고 있음.

2. 국제교류의 필요성

가. 국제교류의 이론적 배경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관한 이론적 배경은 다양한데 국제무역과 분업에서 제시되는 이론을 바탕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음.
- 리카도는 비교우위론의 입장에서 국제교류를 설명하고 있음.
- 생산비에 있어서의 절대우위가 두 나라간 교류를 발생시키고 이익을 발생시키는 필요조건이 아니며, 대신에 두 가지 재화의 생산에 필요한 실질생산비의 비율 즉 상대적 생산비의 차이에 달려 있다는 것임.
- 한 나라는 모든 재화의 생산에 있어서 교류상대국보다 더 높은 실질생산비가 드는 경우에도 다른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임.
- 즉 비교 생산비의 차이가 존재할 때 각 국은 자국이 비교우위를 갖

고 있는 상품의 생산에 특화하여 이를 수출하고 그 대가로 비교 열위의 상품을 수입함으로써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임.

- 결국 한 나라가 모든 재화를 자급자족하는 경우 보다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싼 재화생산에 특화하여 국제분업을 일으킴으로써, 국제교류를 통하여 필요한 재화를 구입하는 것이 그 나라는 물론 세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이익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것임.
- 그러나 비교우위론은 비교우위에 따른 교류의 발생원인과 이익에 대해서는 설명하였으나 정확히 어떠한 선에서 교류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교류조건이 결정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음.
- 그러나 국제분업에 의하여 무역이 성립되고 무역에 의하여 생산량의 증가, 생산요소의 절약, 소비자의 이익 등 무역이익이 발생됨.
- 한편 각 국의 생산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분업과 국제교류가 성립된다고 보았음.
- 또 다른 이론이 쇠신확산이론이다. 쇠신확산이론에서 쇠신은 정보교환과 개연성이 높은 상위계층 중심지에서 나타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쇠신의 효과는 정보의 확산과 주변부내 개혁세력의 자각과 노력 등을 통해 주변지역으로 전파된다고 보고 있음.
- 쇠신확산이론이 지역발전에 시사하는 바는 다양하지만 특히 교통·통신 등 정보화 수준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음.
- 그러므로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강력한 정부의 정책, 신속한 교통·통신망을 갖추고 있어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러한 활발한 교류를 통해 외국의 신기술을 도입하여 지역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임.
- 그러므로 정보화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게 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수출중대와 외자유치 그리고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됨.

- 그리고 예전의 대인관계에 의한 국제교류가 가지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게 되어 국제교류가 훨씬 더 활발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임.

나. 국제교류의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필요성은, 첫째, 국제교류를 통하여 지구촌의 공동 관심사와 국제기준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킬 수 있고, 국제수준에 맞는 각종 법률과 제도, 행정서비스 및 산업 활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으므로 국제교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국제화하는데 필수적임.
- 둘째, 인력과 문물의 교류를 통하여 상호협력과 이해를 증진하고 경제활동은 물론 지역개발과 각종 협력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국제화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교류를 추진하여야만 세계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가능함.
- 셋째, 선진화된 기술과 지식정보를 입수하여 지역산업 등에 활력을 가져오기 위해서 국제교류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보 및 각종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제고에 국제교류는 유용한 지식과 정보의 수집수단이 될 수 있음.
- 넷째, 국제적인 교류행사(문화, 예술, 스포츠, 학술교류 등)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생활문화와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친선과 신뢰관계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국제교류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까지 한 나라의 작은 지방도시라는 소극적인 수준을 넘어서, 세계무대 혹은 지구촌 속의 지방도시로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발전전략 중의 하나

라고 할 수 있음.

- 세계의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화 현상과 함께 정치·경제적인 면에서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에 따르는 공통적인 숙제로는 자율적인 서비스의 공급, 먹는 물,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쓰레기 처리 등 자치단체 상호간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서로의 유익한 경험을 나누며, 기술과 지식을 교환하여 공통의 목표를 달성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함.
- 이처럼 지방정부 상호간의 국제교류는 경제발전, 지역발전, 주민의 복지개선 등에 필수불가결한 협력자를 요구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신의 국제교류정책을 추진해야만 함.
- 자치단체간 국제교류의 구체적인 목적은 크게 두 가지 측면, 즉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 지역경쟁력의 강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는 지방행정의 선진화를, 기업의 차원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옴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음.
- 즉, 선진 행정기술의 도입과 지역공무원의 행정능력의 향상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방행정체제를 갖추는 것이 국제교류의 중요한 목적이라 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주요 목적 중 하나임.
- 지역에서의 정책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국경의 상대화, 또는 실질적인 무국경화 그리고 그 귀결인 세계 상호 의존관계의 심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
- 즉, 지방자치단체가 다원적인 국제교류의 주체로서 독자적인 기능과 활동영역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함.

- 지역경제에 미치는 국제경제의 영향 증대, 지역의 국제적 이미지 만듦이 지역 활성화에서 발휘할 수 있는 효과의 크기 또는 활발한 국제교류의 결과로서 지방분권화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의식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음.
-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외국인 노동자의 지역사회 유입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의 증대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제3절 제주특별자치시대의 국제교류

1.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

- ‘제주특별자치도기본계획’에 따르면 제주도를 자치입법, 조직 및 인사, 재정 등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획기적인 자치권을 갖는 ‘자치모범도시’로 육성한다고 되어 있음.
- 우리나라는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보장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율을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이 규정되고 있음.
- 그러나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직·자치행정·자치재정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왔던 것이 사실임.
-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획기적인 자치권을 부여하고 새로운 분권 제도를 선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제주특

별자치도가 홍콩이나 연방국가의 주 수준의 자치권을 가진 경쟁력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조직·인사 및 재정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이를 통하여 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음.
- 우선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은 외교·국방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중앙 행정기관의 권한·사무를 이양하거나 단계적 이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법률안 제출 요청권을 부여하여 스스로 적합한 제도를 정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히 자치경찰 설치, 교육자치 실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감사위원회 설치, 주민소환제와 인사청문회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분권화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인사관리 및 충원제도를 혁신하고 교육훈련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공무원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있음.
- 그리고 지방세 전 세목을 ‘제주특별자치도세’로 전환하여 감면 조정권을 확대하고 지방채 발행권한을 완전 이양하는 등 재정자주권의 강화를 위한 조항과 함께 중앙 교부금을 법정률로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제주계정을 설치하는 등 정부가 현재 수준 이상으로 재정 지원을 계속하도록 보장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은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우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의 시행과 외자유치 추진을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이하 “개발센터(JDC)”로 약칭함)의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위하여 ‘민자유치위원회’ 및 ‘민자유치지원본부’를 설

- 치하도록 하는 등, 국내·외 자본유치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은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관광, 교육,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을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대표하는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제주도가 ‘동북아의 허브(Hub)’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관광·교육·의료 등 핵심 산업 육성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한데 이어서, 2단계로 필수규제를 제외한 행정규제를 전면 완화 정비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Negative System을 도입하고 있음.
 - IT·소프트웨어, BT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농업 육성 및 수산자원관리체계에 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청정 1차 산업 육성을 위한 농수산업 관련 중앙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도록 하고 있음.
 - 그리고 토지이용·관리체계, 환경관리 및 지하수보전체계, 교통산업, 사회복지제도 운영, 그리고 보건복지제도 및 소방제도에 관해서도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공원녹지계획, 수자원관리종합계획, 환경보전계획 등을 자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되었음.
 -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고 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일종인 ‘특별자치단체’는 정책적 견지에서 ‘특정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그 조직이나 권한이 일반지방자치단체보다 오히려 제한적인 형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권의 대폭적인 확대를 내용으로 한 제한적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음.

2. 대외적 지위 및 권한

- 국방과 외교 사항은 전통적으로 중앙 정부의 전관 사항으로 인정되어 왔음.
- 따라서 단일제국가는 물론 연방국가의 경우에도 국방과 외교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국가사무로 규정해 왔음.
-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조약 체결과 외교사절의 접수 또는 파견 등 외교와 관련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에서도 외교 사무를 국방·사법·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로 분류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당연히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서도 국방과 외교 분야는 국가존립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중앙 정부의 고유한 사무로 처리되도록 규정하게 된 것이라고 봄.
- 그러나 오늘날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직접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음.
- 특히 자매결연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무역·통상·원조 등 전통적으로 중앙 정부에 의하여 추진되어 오던 분야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모습이 일반화됨으로써 외교의 성격 및 주체에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임.
- 이와 같이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이제 이른바 ‘지방외교’(local diplomacy)라는 이름으로 그 역할이 공식화되고 정당화되는 시기를 맞게 되었음.

-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대외 업무는 일반적인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협력 사업 외에도 외자유치 업무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들과의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제적 원조 및 정치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특히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대외활동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지방자치법」에서도 외교에 관한 사무를 국가사무로 분류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음.
- 따라서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외교 또는 대외문제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방의 문제에 관하여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봄.
- 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제·문화·과학·기술·체육·환경·관광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교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국가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평화의 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근거하여 정부가 이미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바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평화의 섬으로서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아 국제평화 및 국제협력 사업은 물론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나 남북교류 사업에 비하여 세계평화의 섬인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그 범위나 수준에 있어서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임.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기본계획’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일종의 연방주에 가까운 특별자치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볼 때 연방국가의 구성국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연구·검토를 통하여 세계평화의 섬과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특별자치도에 걸 맞는 수준의 자치권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의 경우 연방정부와 구성국 정부간의 권한 배분은 연방헌법의 규율사항으로서, 대내적 사항에 관한 권한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에 적절히 배분하되, 대외적 사항은 원칙적으로 연방정부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연방국가의 경우 연방 구성국들의 국가성을 고려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국제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허용되기도 함.
- 다시 말하면 연방헌법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구성국들이 연방에 사전 통고하거나 연방의 사전 동의를 얻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 3국과 조약을 체결하도록 허용하기도 한다는 것임.
- 그러나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의 예를 우리와 같은 ‘단일제 국가’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홍콩이나 마카오의 예를 들어 생각해 보는 것이 훨씬 적실성이 있을 것임.
- 그리고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는 않고 있지만 북한이 경제개방을 위한 시범지역으로 신의주를 ‘신의주특별행정구’로 지정하고 그 법적 지위와 운영을 규율하기 위해서 제정한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이하 “신의주기본법”으로 약칭함)을 보면 그 내용이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이하 “홍콩기본법”으로 약칭함)과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

음을 알 수 있음.

- 즉, 신의주기본법은 국가의 개방거점으로 특정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수준과 범위에서 그 자율권이 부여될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사례인 것임.
- 특별행정구는 현재 중국의 홍콩을 비롯하여 마카오와 북한의 신의주에 적용되고 있는 ‘특별구역’으로서 단순한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 SEZ)와는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임.
- 중국의 경우 ‘특별행정구’(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AR)는 「中華人民共和國憲法」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지만 경제특구는 예를 들어, 광둥성의 경우 「廣東省經濟特區條例」에 의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북한의 신의주의 경우에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신의주기본법이 제정된 바 있으며, 이는 정무원 결정에 의하여 설치된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와는 그 법적 지위가 다름.
- 어쨌든 ‘특별행정구’는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자율성이 보장되어진다는 점에서 연방국가의 구성국(미국의 경우는 州)과 유사한 지위를 가짐.
- 그러나 양자 공히 하나의 주권국가(Sovereign State) 내에서 특별한 지위를 향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예외가 규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외교 및 군사적 분야에서의 독자적인 외교 교섭과 대표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임.
- 그러나 홍콩특별행정구나 연방국가의 주의 경우는 국가에 준하는 수준의 입법·사법·행정권을 향유하고 특히 제한적 범위에서는 대외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외교적 권한도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 및 대외적 권한과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임.

-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홍콩기본법은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고 있는 홍콩특별행정구의 ‘小憲法’(Mini-Constitution)에 해당하는 것임.
- 홍콩기본법에 따르면 홍콩은 중국의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특별행정구’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
- 홍콩은 중국의 주권과 분리되지 아니 하지만 ‘港人治港’의 원리와 ‘一國兩制’에 따른 홍콩의 ‘특별한 지위’가 향후 50년간 보장되도록 하고 있음
- 홍콩은 이 법에 따라 종래의 자유주의적 법 및 사법제도, 그리고 자본주의 제도를 보호·유지하며 앞으로 50년간 중국 국내법의 적용 대상으로부터 제외되도록 하고 있는 것임.
- 홍콩특별행정구는 고도의 자치권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중국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지방행정구역의 하나이며, 중국과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한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기도 함.
- 그러나 중국은 홍콩기본법에 의하여 홍콩의 경제적 및 역사적 지위의 중요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고도의 ‘정치적 독립성’과 ‘경제적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임.
- 이는 여타 중국 내 여러 경제특구의 지위보다 공고하게 형성되고 있는 홍콩의 정치적·경제적·법적·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임.
- 대외업무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와 관련되는 외교 문제에 관해서 책임을 지고, 중국 외교부가 홍콩에 기구를 설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 정부는 홍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홍콩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관련된 대외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홍콩 정부의 대표는 중국 정부가 참가하는 홍콩특별행정

구와 직접 관련된 외교회의에 중국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할 수 있음.

- 경제·무역·금융·해운·통신·관광·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중국 홍콩’(中國香港)의 명의로 단독으로 세계 각국 각 지역 및 관련 국제조직과의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고 관련 협정을 체결하고 이행할 수도 있는 것임.
- 홍콩은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조직 및 국제회의에는 중국 정부대표의 일원으로 참가하고 국가에 준하는 자격으로 기타 국제조직 및 국제회의에 참가할 수 있음.
- 또한 중국 정부에 보고·등록하는 것을 전제로 외국에 공적 또는 기타 준공적인 경제무역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밖에 홍콩은 세계 각국 또는 지역과 무비자(no Visa)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 받고 있으며,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에 대해서 스스로 출입국통제를 시행할 수도 있음.

3. 국제교류와의 관계

- 제주는 21세기 비전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음. 국제자유도시는 사람, 상품, 자본 그리고 정보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된 경제활동자유지역이라 할 수 있음.
- 국제자유도시는 국가적 전략적 차원에서는 하나의 지구촌을 형성하고 있는 세계경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적 차원에서는 대규모 투자유치와 개방화를 통해 제주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발전 전략임.
- 이와 같이 제주가 추구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는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성을 적극 활용한 개방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세

계와의 물적 인적 교류를 통한 국제교류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임.

- 사실, 지금까지 제주는 섬이라는 한계로 인해 그 가치를 최대한 발휘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하지만 세계화·지방화로 인해 이런 지리적 약점은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임.
- 제주는 결코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개방화 및 국제교류지역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제도적 한계로 인해 그 경쟁력을 극대화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
- 그러나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개방화와 교류의 거점화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제주만의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를 2006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출발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제주만의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을 통해 지역의 유·무형자원을 극대화하여 스스로의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행정체제라고 할 수 있음.
- 이런 고도의 자치권을 활용하여 제주가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풍요로운 지역으로 발전·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방화와 국제교류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는 것이 필요함.
- 이는 열악한 투자자본의 한계 그리고 전문적 인력 부족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추진동력인 도민의 세계화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임.
- 따라서 제주가 추구하는 국제자유도시는 세계화의 교류를 핵심으로 한 개방화 전략이기 때문에 국제교류는 제주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

제4절 해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사례 고찰

1. 중국 하얼빈시의 국제교류

- 하얼빈시는 중국 동북지역의 중심도시로서 1979년 이후 일본 니가타시, 아사히카와시, 한국 부천시 등 17개 국가의 20개 도시와 국제우호도시를 체결하였으며, 경제, 기술, 문화, 교육, 위생, 체육, 도시건설, 환경, 관광과 인재교류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음.
- 최근 수년간 하얼빈시의 국제교류는 대외개방의 속도에 따라 발전을 거듭해 왔고 각 국제자매도시와 손을 잡고 공동으로 아름다운 미래를 지향하여 왔으며, 자매도시 간의 우호협력의 심화는 하얼빈시와 각국 자매도시의 공동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 경제무역분야 교류는 자매도시 고위관계자의 상호 방문, 경제무역시찰단의 파견, 투자유치회의 개최 등 다양한 형식의 경제무역 및 기술협력교류를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음.
- 예를 들면, 하얼빈시는 일본 니가타시에서 하얼빈상품전시회를 두 차례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니가타시는 3,000만 엔을 투자하여 하얼빈시와 함께 태양도에 하얼빈-니가타 우의원을 공동건설하여 우호관계를 입증하고 있음.
- 또한 부천시는 하얼빈경제무역상담회에 해마다 대표단과 경제무역시찰단을 파견하고, 하얼빈시는 한국주간행사를 개최하여 경제, 사회, 문화적 실익을 거두고 있음.
- 인재교류분야에서는 일본 니가타시와 자매도시관계를 맺은 후 상호 국제교류 인원을 많이 파견했음.
- 부분적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니가타시에 언어, 의료, 시정, 환경보호, 농업, 음식서비스업, 공업기술 등 각 분야에 총 600명의 연수

생을 70여 차례 파견했음.

- 문화·체육분야는 하얼빈시에서 개최하는 하얼빈 여름음악회, 국제빙설축제, 국제눈조각시합에 일본 니가타시, 아사히카와시, 한국의 부천시 대표단이 참가하였으며, 하얼빈시의 소설화예술단과 경극팀을 일본 니가타시에 여러 차례 파견하여 공연하고, 니가타시도 하얼빈시에 예술단을 파견하여 공연함으로써 문화교류를 통한 우의를 다지고 있음.

2.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 자매결연 역사를 살펴보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18년 스위스의 브루스와 독일의 룩트일이 맺은 것이 시초이며, 프랑스에서는 1919년 패로느와 영국의 블랙번이 맺은 것이 가장 오래된 것임.
- 그러나 자매결연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부흥원조가 자매결연의 촉매 역할을 하면서 시작됨.
- 많은 인명을 잃게 하고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제2차 세계대전에 의한 유럽의 황폐는 심각했으며 제1호로 뉴욕주의 단켈크에서 동명의 탄케크로 편지나 선물을 통하여 원조의 손길들이 이어졌음.
- 이것을 시초로 유럽과 미국의 도시 간에 자매결연이 이루어져 교류를 넓혔음.
- 교류의 단계를 살펴보면 1950년대에는 전쟁으로 인한 상처에 대한 화해를 위한 결연이었고, 1960년대에는 동·서 냉전에 대한 정치적 성격을 초월하여 이해를 위한 결연이었음.
- 많은 지역이 체제가 다른 국가의 도시와 자매결연 맺기를 꺼려하여 교류가 미미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 동유럽에서 민주화 바람이 일어 새로운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였음.

- 1970년대 이후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격차, 개발도상국의 빈곤, 기아, 환경파괴 등 범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을 위한 국제교류가 되고 있음.

3. 일본 아오모리현의 국제교류

- 아오모리는 “21세기 세계와 함께하는 아오모리 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각종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해외출국자는 매년 증가하는데 방문국은 미국, 한국, 홍콩, 중국 순임.
- 국제교류 내용을 보면, 첫째, JET 프로그램이다. 원활한 국제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1987년부터 실시한 외국청년 초청사업(JET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 1995년에는 70명(국제교류원 7명, 영어지도원 63명)의 외국청년을 초청하였음. 이미 4명의 국제교류원(미국인 2명, 한국인 1명, 러시아인 1명)이 초청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와의 국제교류에 가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둘째, 국제교류 이벤트 개최이다. 매년 10월을 국제교류의 달로 정해 아오모리현내 시정촌과 우호협정을 맺고 있는 각국 도시의 문화, 예술, 특산품을 소개하는 「국제상표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음.
- 1994년에는 중국 흑룡강성의 경극을 공연하였고 국제화 심포지엄도 개최하였음.
- 셋째, 국제협력이다. 정부차원에서 대응이 어려운 분야나 아오모리현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분야를 정부와 연계하여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술 연수생을 1974년부터 중남미, 아시아를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4.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 미국의 각주는 국제화 시책으로 관내 기업의 대외통상활동과 관내에 해외로부터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는 계획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었던 바, 대표적인 예로 일리노이주의 수출지원계획을 들 수 있음.
- 동 프로그램의 사업주체는 International Business Division, Illinois Department of Commerce and Community Division으로서, 일리노이주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정보 제공, 수출 진흥, 외국업체의 일리노이주 투자유치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사업내용으로는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해외 Catalogue Trade Show의 개최 지원, 일리노이주의 해외사무소 운영 등이며, 그동안 사업성과로는 미국 연방정부의 해외사무소 외에 주정부의 해외사무소를 다수 운영함으로써 해외의 정보를 손쉽게 접하고 있으며, 지역별 무역센터에서 각종 수출진흥 프로그램을 전개하여 주정부내 업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 다음으로 하와이주의 국제교류 주단위 자매결연 및 운영에 관한 정책지침을 살펴보면, 주의 기본방침은 주와 유사한 정부의 하위행정기관들 중 공통점 또는 역사적 관련이 있는 단체들과 동맹관계를 맺는다는 것임.
- 하와이는 현재 7건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는데 1981년 일본의 후쿠오카현이 처음이며, 1982년 포르투갈의 아조레스제도, 1985년 일본의 오키나와현, 1986년 중국 광둥성, 필리핀의 일로코스섬, 한국의 제주도, 1992년 중국의 해남성 등임.
- 주 단위 자매결연정책을 조직화, 공식화하기 위해 1992년도 하와이 의회법안 제101조는 국제관계사무국에 법적인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일관성 있는 자매결연 정책의 전개를 위임하였음.

- 하와이 국제교류의 기본적인 원칙은 첫째, 하와이와 국제교류를 맺은 지역은 반드시 하와이의 현실에 이득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함.
- 둘째, 상호간 경제적인 이들에 대한 확실한 전망, 자매관계에 대한 주민의 지지 가능성, 왕성한 활동기록 그리고 문화, 교육, 정치적인 교류확대 가능성이 있음.

제3장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실태 및 평가

제1절 우리나라 국제교류 실태 분석 및 평가

1.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연혁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두 지역간의 인적·물적 교류는 물론 다방면의 종합적인 교류를 하는 것을 말함.
- 지방자치단체의 세계무대 등장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국제협력은 서구의 경우 근대국가 확립 이후 1913년 지방자치단체국제연합(IULA)의 설립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대등한 정치력을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지방간 국제관계라는 것은 형식적이고 비정치적인 영역에 머물 수밖에 없었음.
- 그러므로 1956년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제창한 people to people 운동에서 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1961년 경남 진주시와 미국 오레곤주 유진시 간의 자매결연을 필두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가 점점 확대되어 왔음.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의 시드니구상에서 출발한 세계화선언은 지방자치와 함께 지방정부의 통상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었음.
-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국경 없는 무역전쟁은 김영삼정권을 이끌고 있던 정부 고위관료들로 하여금 국가경쟁력 강화

- 라는 지상명제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게 하였음.
-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는 민주화의 토대로서, 민주주의 학교로서 전제하에 이루어졌으나, 동시에 종합적인 국가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하고 지지하는 강력한 토대 구축으로 간주되었음.
 - 국가간 무역전쟁의 후방에 남아 정책집행과 소비의 주체로만 취급받아 왔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함께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을 상승시키는 든든한 동반자로 새로이 부각되었음.
 - 심지어 정부 일각에서는 세계시장이라는 완전경쟁체제하에서 지방정부의 자생력을 기르기 위하여 연방제를 도입하자는 발상마저 나왔음.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하루빨리 지역경제력과 통상능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하였으며, 지방분권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 국제교류보다는 국제통상 등의 용어가 중요한 담론으로 인식되었음.
 - 광역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1980년대부터 본격화 하였으며,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자매결연은 1994년 이후 본격화 하였음.

2. 지방정부 국제교류 실태분석

가. 대상국가별 국제교류 현황 및 특성

- 우리 나라의 국제교류 대상 외국 자치단체 현황을 <표 3-1>에서 살펴보면, 우리 나라와 결연을 맺어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국가는 총 54개국임.

<표 3-1> 국제교류 대상 국가 및 자치단체의 현황

(단위 : 개)

국가교류 대상 외국 자치단체		우리나라 자치단체		
국 가 명	계	계	광 역	기 초
계	744	579	159	420
중 국	292	184	16	168
미 국	98	81	16	65
일 본	114	82	14	68
러시아	26	24	12	12
호 주	17	16	5	11
멕시코	13	13	7	6
타이완	10	10	6	4
베트남	23	23	10	13
기 타	151	146	73	73

자료 :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http://www.klafir.or.kr> 홈페이지 내부 자료를 정리한 것임.

- 이 중 중국의 292개 자치단체가 우리 나라의 16개 광역자치단체, 168개 기초자치단체와 교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은 일본의 114개, 미국의 98개 자치단체가 각각 우리 나라의 82개와 81개 자치단체와 교류를 하고 있음.
- 그 다음으로는 러시아, 베트남, 호주, 멕시코, 타이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나라가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호주, 타이완 등 몇 몇 나라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음.
- 각 국가별 지방정부간 국제교류의 실태를 살펴보면, 한-일 지방정부

간 교류는 1968년 울산시가 일본 야마구치현 하기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2007년말 통계상으로 14개의 광역자치단체, 68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일본지방정부와 교류를 실시하고 있음.

- 이제 한·일 간 지방정부의 교류는 완전히 뿌리를 내리면서 인적교류를 비롯한 상호 방문과 홈스테이, 스포츠와 문화교류가 일상적인 풍경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
- 한·일 지방간 교류는 10여 년의 전통이 축적되면서 상호간에 느끼는 동질감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가장 내용이 풍부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
- 미국과의 교류가 제도나 문화가 달라서 선진 문물을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비하여 일본과의 교류는 상호 호혜적인 측면이 강해서 신뢰 축적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도 급속도로 성장해 왔음.
-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경제교류와 상호협력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 이제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파트너로 성장하였음.
- 중국은 적극적으로 국내시장을 개방하고 자본주의 경제의 도입과 외자유치를 통하여 국내체제를 개혁해 왔음.
- 중국은 개혁, 개방정책 이래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한-중-일 지방간 교류를 크게 확대해 왔음.
- 중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불문하고 3개국 가운데 지방간 교류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국과 한국의 지방정부간 자매결연이 증가하여 국내 184개 자치단체가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하고 있음.
- 특히, 인천 국제공항과 지방도시에서 중국행 국제항공편이 증설되면서 양국간 교류가 더욱 수월해지고 있음.
- 예를 들면, 경기도와 중국 랴오닝성 교류에서는 초기에 추진된 심영

공단 설치를 비롯한 양국 간 경제투자 교류, 공무원 상호 교환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음.

- 중국과의 교류가 가장 활발한 인천광역시도 4개의 중국도시 간 국제교류와 통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경제, 문화, 체육, 관광교류가 일상적인 풍경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음.
- 일본에서도 일-중 지방정부간 교류는 미국에 이어 가장 중요한 국제교류로 일본의 134개 도도부현과 267개 시정촌 등, 301개의 지방정부가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음.
- 1973년 고베시와 중국의 텐진시 간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특히 중국 내 황해안지역의 지방정부가 일본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다수 중국도시가 각자 복수의 일본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다수 중국도시가 각자 복수의 일본도시와 우호교류를 개시하게 되었음.
- 최근에는 굳이 자매결연의 형식을 빌리지 않더라도 분야별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농업, 공업, 상업, 의료 등, 국제교류와 경제협력 사업이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어 동북아 지역 내에 한-중-일 지방간 국제교류의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나. 교류영역별 국제교류 특성

-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이나 우호결연, 우호협력관계, 이에 따른 양국 자치단체간의 문화, 예술, 스포츠, 학술 등의 상호교류, 양국 간의 지방공무원 및 지방의원의 연수시찰, 투자유치를 비롯한 통상무역상담회, 각종 정보의 교환·수집 등 실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경쟁’과 ‘협력’이라는 국제화시대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교류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 각국의 지방자치단체 연합기관을 비롯하여 세계기구와의 협력관계임.
- 자치단체 유형별 교류영역별 국제교류 현황을 <표 3-2>에서 살펴보면, 총 6,051건의 교류를 했으며, 영역별로는 정치행정영역 3,365건, 문화예술영역 937건, 사회교류영역 571건, 지역경제통상영역 542건, 교육영역 502건, 지역개발영역 126건, 기타 8건 등으로 나타났음.¹⁾
- 정치행정영역이 총 교류의 55.6%를 차지하고 있어 절반이 넘고, 그 다음으로는 지역주민이나 지역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화예술영역이 15.5%를 차지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정치행정영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자치단체별로 보면 광역자치단체가 2,756건, 기초자치단체가 3,295건으로 광역자치단체보다는 기초자치단체가 전체 교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제교류가 광역자치단체보다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2> 자치단체 유형별 교류영역별 국제교류 현황

(단위 : 건수)

영역 지역	계	지역 개발	지역경제 통상	문화 예술	정치 행정	사회 교류	교육	기타
총 계	6,051	126	542	937	3,365	571	502	8
광역	2,756	80	288	327	1,671	207	179	4
시	2,485	43	160	445	1,283	322	228	4
군	435	3	24	131	169	35	73	-
구	375	-	70	34	242	7	22	-

자료: 행정자치부(2000),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카드」

1) 국제교류 유형별로 자치단체 교류현황은 지난 3년 동안 훨씬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나 최신 통계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음.

다. 광역자치단체별 국제교류 특성

- 광역자치단체에 있어서 활발한 국제교류의 실적을 행정, 민간, 경제로 나누어 최근 1년 동안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3-3> 자치단체별 국제교류 현황

(단위 : 건수)

광역자치단체	교류지역	행정교류	민간교류	경제교류	합계
서울시	18	36	0	0	36
부산광역시	16	17	1	1	19
대구광역시	8	8	9	2	19
인천광역시	9	33	10	9	52
대전광역시	5	24	19	5	48
울산광역시	9	4	9	2	15
경기도	8	14	5	2	21
강원도	5	26	47	4	77
충청북도	5	2	2	0	4
충청남도	6	16	5	1	22
전라남도	4	6	4	4	14
경상북도	7	16	6	0	22
경상남도	10	16	6	2	24
제주도	4	8	2	1	11

자료 :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지방자치단체 국제자매결연 현황』 2004.

- 2003년도 단년도 통계상으로 보았을 때 교류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원도로 77건에 이룸.
- 행정교류가 26건, 민간교류가 47건, 경제교류가 4건으로 다른 지자체의 실적을 훨씬 웃 돌고 있음.

- 교류내용을 보아도 민간교류가 절반을 넘어서 이미 교류가 행정교류에서 벗어나 다양한 민간교류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예를 들면, 중국 지린성에 청년연합회 대표단이 강원도를 방문하거나 강원도 여성대표단이 지린성을 방문하였음.
 - 일본 돗토리현에 강원 도립대학 대표단이 방문하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시로부터 동북아 지방정부 대학생들을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하였음.
- 두 번째로 교류가 활발한 곳은 인천광역시로 52건이며, 행정교류가 33건, 민간교류가 10건, 경제교류가 9건임.
- 인천광역시는 최근 중국과의 교류를 활발하게 펼치면서 경제교류, 행정교류에 이어 민간교류도 나름대로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미국의 알래스카 주 앵커리지시를 시의회대표단이 방문하거나 베트남의 하이퐁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 인천시민의 날 참가 차 방문한 것 등임.
- 이어서 광주광역시는 시민단체가 일본 센다이시의 환경시설을 시찰하거나 광주광역시의 김치축제에 센다이시의 여성경제인들이 방문하였음.
-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조천로소학교와 광주광역시 일곡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광저우시 부녀연합회 주석일행이 광주광역시를 방문하기도 하였음.
- 충청남도의 경우는 일본 구마모토현과 교류가 집중되어 있음.
- 매달 1~2번씩 양측 대표단이나 민간단체가 상호 왕래하고 있어 매우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여성정책에 대한 공동연구 협의나 충남지역 테니스동호회 친선경기 개최, 한일서예전 개최, 충청남도에서 구마모토 DAY행사와 기모노 패션쇼를 개최하는 등, 다채로운 교류를 전개하고 있음.

- 중국 허베이성 투자설명단이 한국을 방문하거나 의회교류실무단이 허베이성을 방문하고 있음.

3. 지방정부 국제교류 평가

- 국제교류의 증가로 인적, 물적 왕래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나, 그 교류의 실상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방간 교류가 나름대로 독자적인 논리와 체계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가, 물량적 증가가 내실의 충실을 보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숙고가 필요한 시점에 와있는 것임.
- 첫째, 애당초 추구했던 지방정부간 국제교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한-일, 한-중 지방정부 상호간에 빈번하게 투자설명회를 열거나 현지에서 지역특산물전을 개최하여도 투자유치와 거래실적은 기대했던 만큼 높지 못함.
- 지방정부의 경제통상협력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임. 아직까지 무역과 통상은 중앙정부의 분야라는 인식이 강하고 지방정부는 주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지원과 시장개척단 파견 등의 업무에 매달리다보니 중앙정부에 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크게 거두지 못하는 태생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 특히 자매결연 사업의 내실화가 부족한 상태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사업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이 바로 자매결연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자매교류 지역선정이 단순히 몇몇 고위층 인사들의 소개나 두 도시 간 인연, 지역적인 유사성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음.
- 경상북도의 시마네현, 부산시와 야마구치현, 대전광역시와 일본의 오

타시 등은 상호간 인구규모나 산업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활발한 통상교류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강원도의 경우 일본 돛토리현과 자매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나, 도내 기초단체들이 지나치게 광역자치단체에 의존하여 돛토리현에 기초단체와만 교류하는 곳이 대부분임. 장기적으로 보아 일본에 교류지역이 편중되면서 다양한 일본문화와 접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우려가 있음.
- 자매결연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충분한 사전교섭을 통하여 상호 보완 및 발전 가능성을 타진하고, 상대도시와의 교류여건을 비교 검토하는 등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자매결연사업은 그 결연과정에서부터 기관장 위주에서 벗어나 양 지역 주민, 사회단체 등이 주축이 되어 민과 관이 하나가 되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기관장이 바뀌더라도 결연관계가 지속될 수가 있다고 봄.
- 더욱이 실질적인 자매결연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세계적인 이벤트의 발굴 및 육성이 있어야 함.
- 브라질의 리오카니벌, 영국의 에든버러축제, 일본의 삿포로 눈 축제, 스위스의 비엔날레, 일본사기현의 나리따 자기축제, 독일 하노버시의 폭스바겐 등은 지방의 국제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지역이벤트로서 지역문화 속에서 성숙한 시민들의 지방색 있는 생활 태도가 그 지방의 국제성을 높이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자치단체의 프로그램 기획력과 중앙의 재정지원이 합쳐진다면 지방의 경제 활력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이벤트로 성장시켜 고부가가치의 문화 이벤트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임.
- 둘째, 지방정부간 교류가 아직까지 유감스럽게도 대부분 관-관교류

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교류 초기에 해당하는 자치단체가 많아서 아직까지 교류협정 체결을 전후하여 공무원들의 상호 방문이 일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지금까지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방문, 공무원 상호교류가 주된 인적 교류이며, 민간단체나 청소년 교류는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 또한 국제교류를 선도해야 할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자주 바뀌며, 과장이상 공무원들의 평균 재임기간은 2년 이하로 국제적인 인맥 구축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앞으로 국제교류가 체계성을 지니고 실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국제화전략의 장단기계획을 수립해나갈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 특히 공직자들의 연수문제에 한계가 있다. 공직자 연수과정에서 우리가 반성을 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은 연수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연수생들의 연수태도임.
- 아직까지도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연수프로그램 개발을 시중여행사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함.
 - 공직자연수는 연수계획의 수립부터 연수대상기관, 연수내용, 연수평가 등 체계적이고도 실무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연수가 되어야 할 것임.
- 셋째, 국제교류의 진정한 의미는 대외교류와 통상 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국제적인 의식을 높이는데 있다는 점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임.
- 국제화, 세계화로 대변되는 국제교류가 지향하는 목표가 결국은 지역주민의 국제화의식 제고라는 점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음.
-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다른 문화에 호감을 느끼면서 수용하

는 자세를 형성하는 것이 국제교류의 장기적인 목표이나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실정임.

- 넷째, 기초 인프라의 부족이다.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특히 지방공무원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며, 그 원천은 지방공무원의 어학능력에 있다고 단언해도 좋을 것임.
- 문제는 과연 우리가 필요한 국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술과 언어,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임.
- 정보를 수집하는 일 뿐만 아니라, 정보의 저장과 가공·발전에 앞서야 하며 정보의 활용과 교환에 있어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평적 정보화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 정보화시대에 정보에 뒤져선 결코 앞서갈 수 없기 때문임.

제2절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협력 실태 분석

1. 법적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2006년 10월에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동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매결연 도시 선정,²⁾ 민간교류 사업 지원,³⁾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2) 동 조례 3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관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자매결연 도시 선정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3) 동 조례 제7조에는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홍보, 민간단체 및 도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교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 이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6. 2)」에 의거하여 제정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2007. 5)」와 남북 교류협력과 지원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2007. 10)」 등을 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의 목적은 거주외국인 등의 차별방지와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고 있음.
-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기반 구축·남북 교류 지원에 관한 남북 조례에 대한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에 따른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 있음.

2. 조직 및 인력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평화의 섬·국제교류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산하 업무부서인 평화협력과에서 평화정책부서, 평화시설부서, 교류협력부서, 재외도민 관련부서 등 세부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평화정책부서에서는 3명의 직원이 세계평화의 섬 추진계획 수립 및 정책입안·평화의 섬 기념행사·평화아카데미 운영·세계평화의 섬 홍보 및 관련자료 수집 등을 담당하고 있음.
 - 그리고 평화시설 부서에서는 4명의 직원이 평화시설 사업과 제주국제평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류협력과에서는 6명의 직원이 국
-
- 있다.'고 민간교류 사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제교류, 자매결연·남북교류·일본권 교류협력관련·한일해협연안시·도현지사 교류회의 업무·영어권 교류협력을 담당하고 있음.
- 그리고 재외도민 부서에서는 3명의 직원이 재외도민업무와 재외제주도민회 관리를 하고 있음.
 - 이 중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교류의 관한 업무는 교류협력계에서 담당하며 남북교류와 국제교류로 구분되어 처리되고 있음.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는 6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음.
 - 남북 교류와 국제교류라는 포괄적인 업무에 비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어려움이 있으며, 3~4년 단위로 순환보직이 이루어져 국제교류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3. 교류 현황

가. 지자체간 교류 협력

- 제주특별자치도는 11개 국 18개 지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현재 미국 하와이(Hawaii)주, 인도네시아 발리(Bali)주, 러시아 사할린(Sakhalin)주, 중국의 하이난(海南)성, 포르투갈 마데이라(Madeira)주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한·일해협연안지사회의’, 그리고 섬관광정책포럼(ITOP Forum)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3-4 참고).

<표 3-4> 제주특별자치도청 교류 현황

구 분	외국도시/단체/국제기구명	체결/가입일시	비 고
자매결연 지역(5)	미국 하와이주	'86. 11. 25	
	인도네시아 발리주	'89. 6. 16	
	러시아 사할린주	'92. 1. 17	
	중국 해남성	'95. 10. 6	
	미국 캘리포니아주	'05. 11. 10	양해각서체결
	포르투갈 마데이라	'07. 1. 23	
우호도시 (4)	대만 타이페이시	'97. 8. 11	교류증진합의
	호주 태즈매니아주	'97. 10. 27	교류증진 양해각서체결
	일본 시즈오카현	'00. 11. 14	교류실무합의
	중국 대련시	'01. 3. 24	우호교류 협력체결
한일해협 지사회의(4)	· 한국 : 제주, 부산, 전남, 경남 · 일본 :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야마구치	'92. 8. 공동선언문 채택	
섬관광정책 포럼 (7)	발리, 해남성, 오키나와, 카나리아 군도, 사우던섬, 잔지바르, 하와이	'97. 7. 제주선언문 채택	
국제기구 가입	PATA (아태관광협회)	'85. 2.	
	ASTA (미주여행업협회)	'95. 4.	
	UCLG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04. 1. 1	
	KUSEC(한미경제협의회)	'02. 12.	
	NEAR(동북아자치단체연합)	'96. 9	
	WHO AFHC(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합)	'05. 7	
	ICLEI(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05. 3	
	ITOP(섬관광정책포럼)	'97. 7	

- 자매결연 대상이 특정 국가에 한정되고 있으며, 결연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상호간의 관심 부족과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일부 친선 위주의 교류를 제외하면 교류활동이 단순화된 일회성에 그침.

○ 행정시는 4개국 17개 지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표 3-5. 참고).

<표 3-5> 행정시 협력관계 현황

구 분	기관명	자매결연지역	자매결연체결일자	비 고
(10)	제주시 (6)	일본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	'87. 11. 12	
		중국 계림시 관서장족 자치구 꾸이런시	'97. 10. 29	
		프랑스 르앙시	'04. 10. 14	
		중국 산둥성 내주시	'95. 12. 11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로사시	'96. 10. 22	
		일본 효고현 산다시	'97. 7. 31	
	서귀포시 (4)	일본 사가현 가라쓰시	'94. 9. 4	
		일본 이바라키현 카시마시	'03. 11. 26.	
		일본 와카야마현 기노가와시	'87. 2. 20	
		중국 요녕성 흥성시	'96. 11. 12	
(6)	제주시	미국 라스베가스	'97. 9. 28	
		중국 양저우시	'00. 11. 4	
		중국 쿤산시	'01. 11. 17	
		일본 벳부시	'03. 1. 17	
		일본 아라카와구	'06. 2. 17	
		중국 훈춘시	'07. 10. 17	
	서귀포시	중국 해남성 삼아시	'99. 11. 19	

나. 민간부문의 국제교류

○ 제주대학교의 경우, 1984년 8월 7일 일본의 도호쿠(Tohoku) 대학, 1990년 4월 24일 미국의 퍼듀(Purdue) 대학 등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한 이후 2007년 12월 말 현재 16개국 93개 대학 10개 기관의 외국 대학교/기관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교수 및 학생 교류·공동연구 및 자료 교환·학술회의 공동개최 등의 국제교류를 수행하

고 있음.

- 제주한라대학의 경우는 1994년 1월 30일 중국의 복단대학교, 2001년 3월 10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경제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한 것을 포함하여 최근까지 9개 외국 대학과 협정을 체결하여 학술교류를 수행하고 있음.
- 제주관광대학의 경우는 1992년 3월 10일 미국의 오슬랜드 대학교, 1995년 11월 10일 호주의 웨스턴 시드니 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최근까지 14개 외국대학과 협정을 체결하여 학술교류를 수행하고 있음.
- 이밖에, 라이온즈 클럽, 로타리 클럽, 청년회의소, 한국 보이스카웃 제주연맹 등 사회단체와 제주관광협회, 제주상공회의소 등 경제관련 단체, 그리고 한림 농협 등이 주로 일본, 중국, 대만의 민간·사회단체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친선 교류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44개 기관·학교·단체에서 11개국 93개 기관·학교·단체와 자매결연 관계를 맺고 있으나 지역주민과 민간단체의 참여와 호응이 매우 부진한 실정임.

제3절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 실증 평가

1. 조사의 설계

-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매·우호도시 간 행정 및 민간교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아울러 국제교류협력 관련 정책 및 교류사업에 대한 도민의 주관적 인식 및 평가를 통해 향후 국제교류협력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었음.

-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직접(face-to-face) 면접조사가 실시되었으나, 조사 응답자가 직접 기입할 수 있는 경우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방법(self-administrative questionnaire)도 부가적으로 사용됨.
- 조사의 모집단은 현재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지역별 할당을 고려하여 단순무작위 표출방법에 의해서 최종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최종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440명으로부터 설문조사한 자료들 가운데 6부의 응답부실 사례를 뺀 나머지 434명이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음.
- 자료수집은 2007년 12월 22일~2007년 12월 25일 사이에 이루어졌음.
- 수집된 자료는 Coding Editing 과정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Progra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됨.

2. 조사결과 분석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표 3-6>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예컨대, 연령, 성별, 학력, 직업, 출생지역)을 보여주고 있음.
- 조사대상자의 연령 분포를 보면, 전체 응답자 434명 가운데 30대가 24.6%(106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대 23.0%(99명), 20대 19.5%(84명), 50대 17.4%(75명), 그리고 60세 이상이 15.5%(67명)로 나타남.
-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전체 응답자 434명 가운데 남성은 49.9%(215명)이었으며, 여성은 50.1%(216명)로 나타남.

- 조사대상자의 학력별 분포를 보면, 대졸이 48.0%(206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졸 41.5%(178명), 중졸 이하 7.9%(34명), 그리고 대학원 이상 2.6%(11명) 순으로 나타남. 응답자의 대다수가 고졸 이상의 학력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3-6>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구 분	빈 도(명)	비 율(%)	
연 령	20대	84	19.5
	30대	106	24.6
	40대	99	23.0
	50대	75	17.4
	60세 이상	67	15.5
성 별	남성	215	49.9
	여성	216	50.1
최종학력	중졸 이하	34	7.9
	고졸	178	41.5
	대졸	206	48.0
	대학원 이상	11	2.6
직 업	농수축산업	49	11.4
	자영업	84	19.6
	생산/기술직	28	6.5
	사무/판매/서비스직	62	14.5
	공무원	25	5.8
	경영/전문직	26	6.1
	전업주부	69	16.1
	학생	63	14.7
출생지역	무직	22	5.1
	제주도	388	90.4
	서울시	3	0.7
	경기도	8	1.9
	강원도	2	0.5
	충청도	3	0.7
	경상도	21	4.9
전라도	4	0.9	
합 계	434	100.0	

- 조사 응답자의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9.6%(8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업주부 16.1%(69명), 학생 14.7%(63명), 사무·판매·서비스 14.5%(62명), 농수축산업 11.4%(49), 생산·기술직 28(6.5%), 경영·전문직 26(6.1%), 공무원 25(5.8%), 그리고 무직 22(5.1%) 순으로 나타남.
- 조사 응답자의 출생지역 분포를 보면, 제주도가 90.4%(388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상도 4.9%(21명), 경기도 0.7%(8명), 전라도 0.9%(4명), 서울시 및 충청도 각각 0.7%(3명), 그리고 강원도 0.5%(2명) 순으로 나타남.

나. 국제교류의 인지도 관련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등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 비율을 보면 37.9%(164명)가 모르고 있고, 반면에 알고 있는 경우가 30.5%(132명)로 나타남. 따라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30% 정도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표 3-7. 참고).

<표 3-7>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등 협력관계에 대한 인지정도

(단위 : 명, %)

구 분	빈 도(명)	비 율(%)
전혀 모름	46	10.6
모름	118	27.3
보통	137	31.6
어느 정도 알고 있다	116	26.8
매우 잘 알고 있다	16	3.7
합 계	433	100.0

- 국제교류에 참여한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참여해 본 경험이 없다가 62.3%(270명)이고, 반면에 참여해 본 경험이 많다는 경우가 25.2%(66명)로 나타남. 따라서 많은 응답자들이 국제교류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3-8> 외국 지역과의 국제교류에 참여해 본 경험

(단위 : 명, %)

구 분	빈 도(명)	비 율(%)
전혀 없다	94	21.7
없다	176	40.6
보통	97	22.4
많다	50	11.5
매우 많다	16	3.7
합 계	433	100.0

- <표 3-9>는 국제교류에 참여해 본 분야의 순위별 분포를 보여 주고 있는데, 우선 1순위 영역에서는 경제·통상교류가 23.2%(23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학술·예술교류 22.2%(22명), 행정·인력교류 19.2%(19명), 청소년 교류 및 친선교류가 각각 12.1%(12명), 그리고 문화교류가 11.1%(11명)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절반 이상이나 경제, 학술, 그리고 행정 분야의 국제교류에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남.
- 2순위 영역에서는 문화교류가 36.3%(33명), 학술·예술 교류 17.6%(16명), 경제·통상 교류 14.3%(13명), 행정·인력 교류 13.2%(12명), 기타 친선교류 9.9%(9명), 그리고 청소년 교류 8.8%(8명)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2순위 영역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이 문화, 학술 및 예술 분야 교류에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표 3-9> 국제교류에 참여해 본 영역 1순위/2순위 분포

(단위 : 명, %)

구 분	1 순위		2 순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행정·인력 교류	19	19.2	12	13.2
경제·통상 교류	23	23.2	13	14.3
학술·예술 교류	22	22.2	16	17.6
문화 교류	11	11.1	33	36.3
청소년 교류	12	12.1	8	8.8
기타 친선 교류	12	12.1	9	9.9
합 계	99	100.0	91	100.0

- 제주지역 민간부문의 국제교류사업 추진 정도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39.5%(167명)가 '적다'라고 응답하였고, 반면에 '많다'는 반응은 16.6%(70명)로 나타남(표 3-10. 참고).

<표 3-10> 민간부문의 국제교류사업 정도

(단위 : 명, %)

구 분	빈 도(명)	비 율(%)
매우 적음	36	8.5
적음	131	31.0
보통	185	43.8
많음	65	15.4
매우 많음	5	1.2
합 계	422	100.0

- <표 3-11>은 제주지역 민간부문의 교류사업이 많은 1순위 영역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문화교류가 25.9%(28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제·통상교류 24.1%(26명), 행정·인력교류 20.4%(22명), 학술·예술교류 14.8%(16명), 기타 친선교류 8.3%(9명), 그리고 청소년 교류 6.5%(7명) 순으로 나타남.

- 또한 민간교류 사업이 많은 2순위 영역을 보면, 경제·통상교류가 25.5%(27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문화교류 19.8%(21명), 기타 친선교류 17.9%(19명), 학술·예술교류 13.2%(14명), 청소년 교류 12.3%(13명), 그리고 행정·인력교류 11.3%(12명) 순으로 나타남.

<표 3-11> 민간부문의 교류사업이 많은 1순위/2순위 영역 분포

(단위 : 명, %)

구 분	1 순 위		2 순 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행정·인력 교류	22	20.4	12	11.3
경제·통상 교류	26	24.1	27	25.5
학술·예술 교류	16	14.8	14	13.2
문화 교류	28	25.9	21	19.8
청소년 교류	7	6.5	13	12.3
기타 친선 교류	9	8.3	19	17.9
합 계	108	100.0	106	100.0

- <표 3-12>는 제주도에서 민간부문의 국제교류사업이 적은 주요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데, 해당지역에 대한 정보 부족이 44.4%(80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의 추진의지 부족 27.8%(50명), 예산부족 13.9%(25명), 그리고 자치단체의 지원 부족 13.9%(25명) 순으로 나타남.
- 민간부문의 국제교류사업이 적은 2순위 이유로는 도의 추진의지 부족이 30.6%(52명), 다음으로 자치단체의 지원 부족 24.1%(41명), 예산부족 23.5%(40명), 그리고 해당지역에 대한 정보 부족이 21.8%(37명)로 나타남.

<표 3-12> 민간부문의 국제교류사업이 적은 이유(1순위/2순위)

(단위 : 명, %)

구 분	1 순위		2 순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해당지역의 정보 부족	80	44.4	37	21.8
예산 부족	25	13.9	40	23.5
추진의지 부족	50	27.8	52	30.6
자치단체의 지원 부족	25	13.9	41	24.1
합 계	180	100.0	170	100.0

-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제교류의 중요성 정도에 대한 응답 분포가 아래 <표 3-13>에 나타나 있음. 먼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에서 향후 국제교류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75.4%(323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보통이다 19.6%(84명), 그리고 중요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4.9%(21명)로 나타남. 따라서 대다수 조사 응답자들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데 향후 국제교류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13> 향후 국제교류의 중요성 정도

(단위 : 명, %)

구 분	빈 도(명)	비 율(%)
매우 낮다	3	0.7
낮다	18	4.2
보통	84	19.6
높다	221	51.6
매우 높다	102	23.8
합 계	428	100.0

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에 대한 평가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전체 조사 응답자 가운데 44.0%(191명)이 담당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다음으로 ‘보통이다’ 34.1%(148명), 그리고 ‘충분하다’가 21.8%(95명) 순으로 나타남(표 3-14. 참고). 따라서 향후 국제교류를 활성화해 나가려면 현재 보다 국제교류 담당 인력을 더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3-14> 국제교류 담당인력 충분 정도

(단위 : 명, %)

구 분	빈 도(명)	비 율(%)
매우 부족	46	10.6
부족	145	33.4
보통	148	34.1
충분	87	20.0
매우 충분	8	1.8
합 계	434	100.0

<표 3-15> 국제교류 예산의 충분 정도

(단위 : 명, %)

구 분	빈 도(명)	비 율(%)
매우 부족	28	6.5
부족	115	26.6
보통	161	37.2
충분	105	24.2
매우 충분	24	5.5
합 계	433	100.0

-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 추진 관련 예산 평가와 관련하여, 전체 조사 응답자 가운데 37.2%(161명)이 예산 정도가 ‘보통 정도이다’는 것이고, 다음으로 ‘부족하다’ 33.1%(143명), 그리고 ‘충분하다’가 29.7%(129명)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국제교류 예산이 충분하다 보다는 부족하다는 응답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남(표 3-15. 참고).
- <표 3-16>은 제주도가 맺고 있는 5개의 자매결연 지역(하와이주, 발리주, 사할린주, 해남성, 마데이라주)과 4개의 우호도시 지역(타이페이시, 태즈매니아주, 시즈오카현, 대련시)과의 국제교류가 제주발전에 기여 정도를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전체 응답자의 32.5%(141명)가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 지역과의 국제교류가 제주발전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는 응답 결과를 보임. 그러나 22.8%(99명)은 국제교류가 제주발전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임.

<표 3-16> 국제교류가 제주발전에 기여 정도

(단위 : 명, %)

구 분	빈 도(명)	비 율(%)
전혀 없음	19	4.4
없음	80	18.4
보통	194	44.7
많음	126	29.0
매우 많음	15	3.5
합 계	434	100.0

- <표 3-17>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국제교류를 확대한다면 교류 대상지역의 선호 순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교류대상 1순위 지역 가운데 미국 등 북미 지역이 33.6%(144명)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고, 다음으로 중국 등 동북아시아 26.2%(112명), 호주 등 오세아니아 20.3%(87명), 영국 등 유럽지역 11.4%(49명),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아 지역 8.4%(36명)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절반 이상의 조사 응답자들은 미주 지역 및 중국 등 동북아지역과 향후 국제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임.

<표 3-17> 향후 국제교류의 필요한 지역(1순위/2순위)

(단위 : 명, %)

구 분	1 순 위		2 순 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미국 등 북미지역	144	33.6	79	18.7
호주 등 오세아니아	87	20.3	80	19.0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36	8.4	86	20.4
중국 등 동북아지역	112	26.2	112	26.5
영국 등 유럽지역	49	11.4	65	15.4
합 계	428	100.0	422	100.0

- 교류대상 2순위 지역 가운데 중국 등 동북아지역 26.5%(112명)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고, 다음으로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20.4%(86명), 호주 등 오세아니아 19.0%(80명), 미국 등 북미지역 18.7%(79명), 그리고 영국 등 유럽지역 15.4%(65명)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2순위 선호지역은 절반 가까이 조사 응답자가 동북·동남 아시아 지역으로 나타남.
-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국지역과 자매결연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혹은 전문가로부터 의견 청취를 듣는 사항에 대한 응답 분포가 <표 3-18>에 잘 나타나 있음. 즉, 외국지역과 자매결연 맺을 때 제주특별자치도가 시민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3.0%(186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보통이다 42.5%(184명), 그리고 의견 청취를 많이 한다가 14.6%(63명)로 나타남.

<표 3-18> 시민단체나 전문가의 의견청취 여부

(단위 : 명, %)

구 분	빈 도(명)	비 율(%)
전혀 없다	18	4.2
없다	168	38.8
보통	184	42.5
많다	57	13.2
매우 많다	6	1.4
합 계	433	100.0

- <표 3-19>는 제주도가 국제교류 추진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관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한 응답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민간과의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가 43.1%(187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보통이다 39.9%(173), 그리고 잘 되어 있다가 17.1%(74명)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민간과의 협력관계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9> 민간과의 협력관계 구축여부

(단위 : 명, %)

구 분	빈 도(명)	비 율(%)
전혀 되어 있지 않다	13	3.0
되어 있지 않다	174	40.1
보통	173	39.9
잘 되어 있다	71	16.4
매우 잘 되어 있다	3	0.7
합 계	434	100.0

<표 3-20> 제주도민들의 국제교류 개방의식 정도

(단위 : 명, %)

구 분	빈 도(명)	비 율(%)
매우 낮다	29	6.7
낮다	165	38.1
보통	108	24.9
높다	113	26.1
매우 높다	18	4.2
합 계	433	100.0

- 제주도민들이 국제교류를 위한 개방의식 정도를 살펴보면(표 3-20. 참고), 국제교류의 개방 마인드가 낮다가 44.8%(194명), 보통이다 24.9%(108명), 그리고 개방의식이 높다가 30.3%(131명)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제주도민의 국제교류에 대한 개방의식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판단됨.
- <표 3-21>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 필요성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필요성이 높게 인식하는 경우가 77.9%(338명), 그저 그렇다 17.7%(77명), 그리고 필요성을 적게 느끼는 경우가 4.3%(19명)으로 나타남. 따라서 대다수 조사 응답자들은 제주도의 국제교류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21>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교류의 필요성 정도

(단위 : 명, %)

구 분	빈 도(명)	비 율(%)
매우 적다	1	0.2
적다	18	4.1
보통	77	17.7
높다	222	51.2
매우 높다	116	26.7
합 계	434	100.0

- 외국 지역과의 국제교류가 실질적 제주발전 보다는 기관장 방문 등 형식적 측면에 치우치고 있다는 인식에 대한 동의 여부가 <표 3-22>에 나타나 있음. 국제교류의 형식적 경향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 비율이 58.7%(255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보통이다 28.8%(212명), 그리고 12.4%(54명)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절반 이상의 조사 응답자들은 국제교류가 제주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형식적 측면이 강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2> 국제교류의 형식적 경향에 대한 인식 정도

(단위 : 명, %)

구 분	빈 도(명)	비 율(%)
절대 동의하지 않음	4	0.9
동의하지 않음	50	11.5
보통	125	28.8
동의함	212	48.8
매우 동의함	43	9.9
합 계	434	100.0

- <표 3-23>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 성과에 대한 평가 정도를 보여주고 있음.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성과가 적다는 경우가 32.8%(142명)로 가장 많고, 반면에 성과가 많다는 응답은 31.2%(135명)로 나타남. 따라서 국제교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적고 많음에 대한 인식은 거의 비슷한 응답 분포를 보이고 있음.
- 국제교류가 제주도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많은 성과를 가져 온다는 응답 비율이 47.2%(204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보통이다 38.4%

(166명), 그리고 성과가 적다가 62%(62명) 순으로 나타남.

<표 3-23> 국제교류의 성과 평가

(단위 : 명, %)

성과 유형	구 분			
	적 음	보 통	많 음	합 계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142(32.8)	156(36.0)	135(31.2)	433(100.0)
제주도의 이미지 제고	62(14.4)	166(38.4)	204(47.2)	432(100.0)
제주도민의 국제화 수준 향상	68(15.7)	139(32.1)	226(52.2)	433(100.0)
지역의 정체성 인식 기회 제공	127(29.3)	179(41.3)	127(29.4)	433(100.0)
인류평화공동체 구현에 기여	146(33.7)	192(44.3)	95(21.9)	433(100.0)

- 국제교류가 제주도민의 국제화 수준을 향상시켜 주었다는 성과와 관련하여 그 성과가 많다는 반응이 52.2%(226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보통이다 32.1%(139명), 그리고 성과가 적다는 인식이 15.7%(68명)로 나타남.
- 국제교류가 지역의 정체성을 인식시키는 기회를 제공한 성과가 많다는 응답이 29.4%(127명), 보통이다 41.2%(179명), 그리고 성과가 적다는 경우가 29.4%(127명)로 나타남.
-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가 인류평화공동체 구현에 기여한 성과가 많다는 응답이 21.9%(95명), 보통이다 44.3%(192명), 그리고 성과가 적다는 경우가 33.7%(146명)로 나타남.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가 제주도의 이미지 제고, 제주도민의 국제화 수준 향상,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 인식 기회 제공에 성과를 많이 보였다는 인식을 하였고, 반면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류평화공동체 구현에 기여한 성과는 적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남.

다. 향후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부체제의 정비(예컨대, 조직 신설, 전문인력 양성 등)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표 3-24. 참고), 먼저 내부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9.6%(302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그저 그렇다 26.3%(114명), 그리고 필요 없다가 4.1%(18명)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조사 응답자들이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부체제 정비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있음.

<표 3-24>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내부체제 정비의 필요 여부

(단위 : 명, %)

구 분	빈 도(명)	비 율(%)
필요 없음	18	4.1
그저 그렇다	114	26.3
필요함	260	59.9
꼭 필요함	42	9.7
합 계	434	100.0

<표 3-25>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개방의식 필요 여부

(단위 : 명, %)

구 분	빈 도(명)	비 율(%)
절대 필요 없음	1	0.2
필요 없음	11	2.5
그저 그렇다	58	13.4
필요함	283	65.4
절대 필요함	80	18.5
합 계	433	100.0

- 제주특별자치도의 향후 국제교류 활성화와 관련하여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와 도민들의 개방의식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응답 분포를 보면(표 3-25. 참고), 도민들이 개방의식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3.9%(363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그저 그렇다 13.4%(58명), 그리고 개방의식이 필요 없다는 경우가 2.7%(12명)로 나타남. 따라서 절대 대다수 조사 응답자가 향후 국제교류가 활성화되려면 관 주도 보다 민간부문이 자발적인 참여와 도민들의 개방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6> 향후 국제교류의 실용적 접근 필요성 여부

(단위 : 명, %)

구 분	빈 도(명)	비 율(%)
필요 없음	9	2.1
그저 그렇다	94	21.7
필요함	251	57.8
절대 필요함	80	18.4
합 계	434	100.0

-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가 제주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접근 필요성과 관련하여(표 3-26. 참고), 조사 응답자들의 대다수(76.2%)가 실용적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반면에 그저 그렇다는 경우도 21.7%(94명)를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제주발전에 이익이 되는 점을 고려하는 실용적 접근을 우선시할 필요성이 있음.
- <표 3-28>은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교류를 추진하는데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분야를 보여주고 있음(표 3-28. 참고). 먼저 1순위 역점 분야를 살펴보면, 전체 조사 응답자 가운데 46.7%(201명)

이 경제·통상교류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행정·인력교류 16.7%(72명), 문화교류 16.3%(70명), 학술·예술교류 9.3%(40명), 기타 친선교류 6.3%(27명), 그리고 청소년 교류 4.7%(20명)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교류를 추진하는데 경제·통상 교류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표 3-27> 향후 국제교류 추진에 역점 분야 (1순위/2순위)

(단위 : 명, %)

구 분	1 순위		2 순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행정·인력 교류	72	16.7	85	20.1
경제·통상 교류	201	46.7	76	18.0
학술·예술 교류	40	9.3	67	15.8
문화 교류	70	16.3	124	29.3
청소년 교류	20	4.7	35	8.3
기타 친선 교류	27	6.3	36	8.5
합 계	430	100.0	423	100.0

- 향후 국제교류의 중심 주체 분포를 살펴보면(표 3-28. 참고), 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경우가 42.3%(182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시민단체 23.5%(101명), 지방자치단체 15.3%(66명), 지역대학 및 연구소 15.1%(65명), 그리고 지방의회 3.7%(16명)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그리고 민간단체가 향후 국제교류의 중심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많은 조사 응답자가 공감을 표시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부문의 참여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

<표 3-28> 향후 국제교류의 중심 주체

(단위 : 명, %)

구 분	빈 도(명)	비 율(%)
지방자치단체	66	15.3
지방의회	16	3.7
시민단체	101	23.5
지역대학 및 연구소	65	15.1
자치단체 · 민간	182	42.3
합 계	430	100.0

- 향후 국제교류에 있어 행정역량을 보완하고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민간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제주국제교류협력지원협의회」 구성 필요성에 대한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표 3-29. 참고), 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경우가 57.4%(249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그저 그렇다 35.5%(154명), 필요없다가 7.2%(31명) 순으로 나타남. 그러므로 절반 이상의 조사 응답자들이 향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국제교류협력지원협의회」 구성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

<표 3-29> 향후 제주국제교류협력지원협의회의 구성 필요성

(단위 : 명, %)

구 분	빈 도(명)	비 율(%)
절대 필요 없음	3	0.7
필요 없음	28	6.5
그저 그렇다	154	35.5
필요함	240	55.3
절대 필요함	9	2.1
합 계	434	100.0

라. 향후 국제교류에서 민간교류의 활성화 방안

-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하는데 민간교류의 활성화 필요성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가운데 80.2%(348명)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그중 18.0%(78명), 그리고 1.8%(8명)이 필요없다는 반응을 보임. 따라서 대다수 조사 응답자들이 향후 국제교류 추진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교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음(표 3-30. 참고).

<표 3-30> 민간교류 활성화의 필요 여부

(단위 : 명, %)

구 분	빈 도(명)	비 율(%)
절대 필요 없음	1	0.2
필요 없음	7	1.6
그저 그렇다	78	18.0
필요함	305	70.3
절대 필요함	43	9.9
합 계	434	100.0

<표 3-31> 국제교류에서 민간교류 지원시 참여 의향

(단위 : 명, %)

구 분	빈 도(명)	비 율(%)
절대 참여하지 않음	17	3.9
가능한 참여하지 않음	90	20.8
가능한 참여함	257	59.4
꼭 참여함	69	15.9
합 계	433	100.0

- <표 3-31>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민간교류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면 국제교류 참여 의향에 대한 응답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참여 의향을 가진 경우가 75.3%(326명)로 가장 많고, 반면에 참여하지 않을 의향이 있는 경우가 24.7%(107명)로 나타남. 따라서 민간교류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 국제교류에 참여할 의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민간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기관의 지원 방안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가운데 39.0%(168명)가 예산·인력·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다음으로 정보 및 자료 제공이 26.9%(116명), 예산 및 인력지원 16.2%(70명), 예산지원 11.6%(50명), 그리고 인력지원 6.3%(27명) 순으로 나타남(표 3-32. 참고).

<표 3-32>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기관 지원 방안

(단위 : 명, %)

구 분	빈 도(명)	비 율(%)
예산지원	50	11.6
인력지원	27	6.3
정보 및 자료제공	116	26.9
예산 및 인력 지원	70	16.2
예산·인력·정보제공	168	39.0
합 계	431	100.0

- 국제교류에서 민간교류를 활성화하는데 가장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표 3-33. 참고), 도민들이 국제교류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31.6%(137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국제교류 관련 민간단체들의 적극적 참여활동 19.6%(85명), 예산 및 인력확충 19.1%(83명), 국제교류

담당 부서와 민간단체의 긴밀한 협력 15.4%(67명), 그리고 도민들에 대한 국제화 및 세계시민 교육 프로그램 운영 14.3%(62명)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조사 응답자들은 국제교류에서 민간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도민들의 국제교류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지원, 국제교류 관련 민간단체들의 적극적 참여활동, 예산 및 인력 확충과 같은 사항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표 3-33> 국제교류에서 민간교류 활성화시 가장 필요한 사항

(단위 : 명, %)

구 분	빈 도(명)	비 율(%)
도민들이 국제교류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지원	137	31.6
예산 및 인력 확충	83	19.1
국제교류 담당 부서와 민간단체의 긴밀한 협력	67	15.4
국제교류 관련 민간단체들의 적극적 참여활동	85	19.6
도민들에 대한 국제화 및 세계시민 교육 프로그램 운영	62	14.3
합 계	434	100.0

- 국제교류에서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가칭)제주국제교류재단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가운데 70.6%(293명)이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고, 반면에 29.4%(122명)는 재단 설립이 필요 없다는 응답을 보였음(표 3-34. 참고). 따라서 대다수 조사 응답자들은 (가칭)제주국제교류재단의 설립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4> (가칭)제주국제교류재단 필요 여부

(단위 : 명, %)

구 분	빈 도(명)	비 율(%)
예	293	70.6
아니오	122	29.4
합 계	415	100.0

- <표 3-35>는 (가칭)제주국제교류재단의 설립 형태에 대한 응답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재단 형태가 순수 민간단체 형태로 새롭게 설립하여야 한다는 경우가 40.4%(129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존의 유사재단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는 형태 30.4%(97명), 그리고 제주국제화 장학재단이 제주국제교류재단으로 통폐합하는 형태가 29.2%(93명) 순으로 나타남.

<표 3-35> (가칭)제주국제교류재단의 설립 형태

(단위 : 명, %)

구 분	빈 도(명)	비 율(%)
순수 민간단체 형태로 새롭게 설립	129	40.4
기존의 유사 재단의 기능 확대 개편	97	30.4
제주국제화 장학재단이 제주국제교류재단으로 통폐합	93	29.2
합 계	319	100.0

- <표 3-36>은 (가칭)제주국제교류재단이 설립된다면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분야에 대한 응답 분포를 보여주고 있고 있음. 우선 1순위 역점 분야를 살펴보면, 경제·통상교류 40.9%(132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행정·인력교류 14.9%(48명), 문화교류 13.3%(43명),

국제교류 관련 조사연구 11.1%(36명), 학술·예술교류 10.2%(33명), 기타 친선교류 5.0%(16명), 그리고 청소년 교류 4.6%(15명)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절반 이상의 조사 응답자가 경제·통상교류와 행정·인력교류에 역점을 두는데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

- 2순위 역점 분야를 살펴보면, 문화교류 26.0%(82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행정·인력교류 18.4%(58명), 경제·통상교류 16.5%(52명), 학술·예술교류 14.0%(44명), 청소년 교류 9.8%(31명), 국제교류 관련 조사연구 9.2%(29명), 그리고 기타 친선교류 6.0%(19명) 순으로 나타남.

<표 3-36> (가칭)제주국제교류재단이 설립시 역점 분야(1순위/2순위)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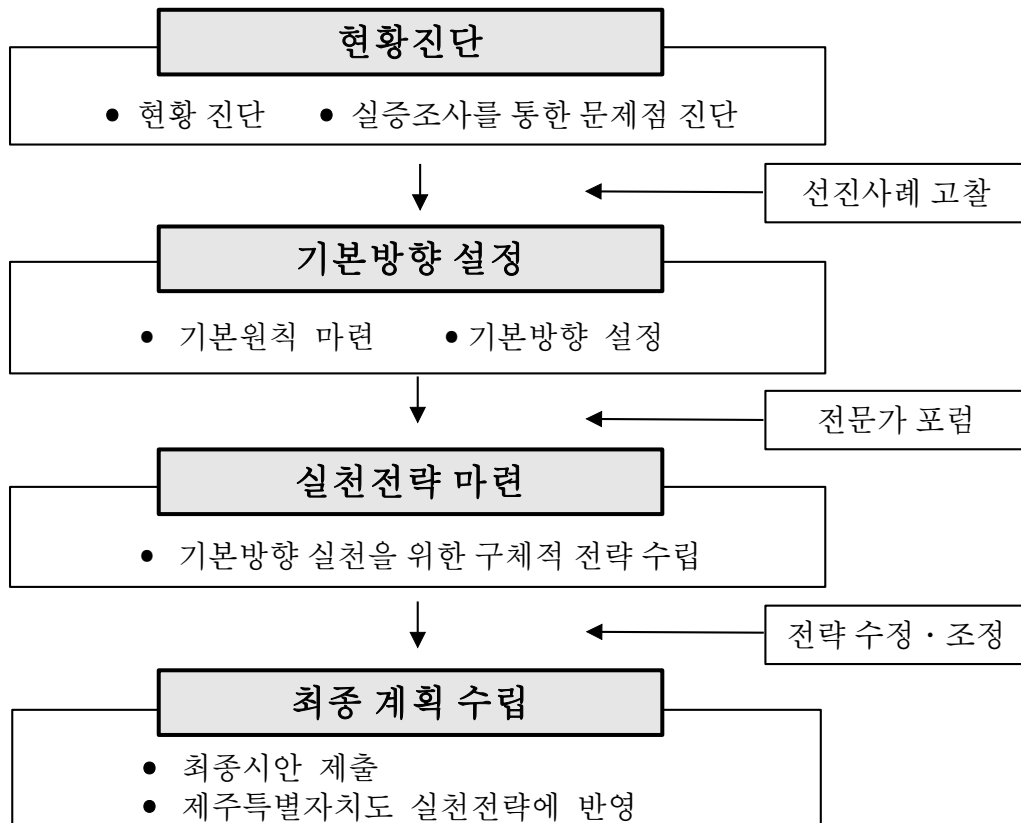
구 분	1 순 위		2 순 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행정·인력 교류	48	14.9	58	18.4
경제·통상 교류	132	40.9	52	16.5
학술·예술 교류	33	10.2	44	14.0
문화 교류	43	13.3	82	26.0
청소년 교류	15	4.6	31	9.8
기타 친선 교류	16	5.0	19	6.0
국제교류 관련 조사연구	36	11.1	29	9.2
합 계	323	100.0	315	100.0

제4장 국제교류협력의 발전 기본방향

제1절 접근구도

- 제주는 동북아의 전략적 중심지로서 21세기 태평양시대의 새로운 문명발원지로 도약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음.
- 과거의 제주는 섬이었기에 변방이었고 유배지였음. 그러나 이제 변방의 역사를 가진 제주는 세계화·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세계를 향한 교류의 중심지로 거듭 태어나고 있는 것임.
- 제주가 21세기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는 바로 국제교류의 실천전략으로서 사람, 상품, 자본,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함.
- 이런 교류와 협력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국제자유도시를 통해 제주 지역은 잠재된 유·무형 자원을 극대화하여 살기 좋은 제주를 건설해 나갈 것임.
- 지역의 개방마인드 속에서 지속적인 세계와의 교류를 통해 자립적인 발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함.
- 국제교류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진정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국제교류 전략이 필요한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첫째,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 현황 분석과 더불어 문제점 진단이 선행되어야 함.
- 둘째, 여타 외국의 국제교류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함. 이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상의 차별화된 지위와 권한을 가진 새로운 성격의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임.

- 이를 통해 새롭게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교류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정책적 시사점을 도입하고 전략 실천과정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 셋째,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는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관습적 국제교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철학을 수용하고 이의 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쇄신적 국제교류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함.
- 넷째, 설정된 기본방향 하에서 실용적 국제교류를 달성할 수 있는 실천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음.



<그림 1>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한 접근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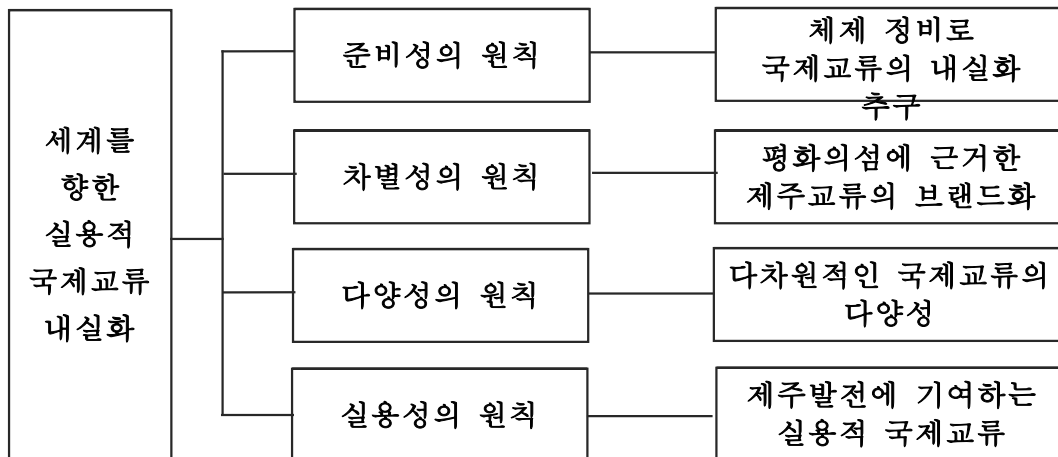
제2절 기본방향

1. 기본방향

-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를 통하지 않고 세계와 곧바로 통하는 글로벌 플레이어(global play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는 관습적인 국제교류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에 한계로 작용함.
- 제주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된 제주형 국제교류를 통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제주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실용적인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제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함. 즉, 국제교류에 필요한 조직, 인력, 정보, 자원 등에 대한 내부적 체제를 구축해야 함.
- 둘째, 이런 내부적 체제의 바탕 위에서 관과 민간부문의 협력적 체제를 통해 관 주도의 국제교류가 아니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동참이 이루어져야 하고 마음의 개방화가 이루어져야 함.
- 셋째, 형식적인 국제교류가 아니라 제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함. 특히 경제교류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문화 등 다양한 교류의 내실화가 필요한 것임.
- 넷째, 제주는 평화의 섬을 추구하고 있다. 평화의 섬의 출발은 포용성이다. 이런 포용성이 발휘될 수 있는 국제교류가 되어야 함.
-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교류의 발전 기본방향을 ‘세계를 향한 실용적 국제교류의 내실화’로 설정하였음.

2. 기본원칙

- 제주특별자치도의 ‘세계를 향한 실용적 국제교류의 내실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 아래 그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 첫째, 준비성의 원칙.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의 초석은 국제교류의 내실화에 있음. 이를 위해서는 국제교류 추진에 필요한 제반 요소들이 구비되어야 한다는 것임.
- 둘째, 차별성의 원칙. 제주특별자치도와 평화의 섬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라는 지역적 비전을 달성할 수 있고 여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국제교류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임.
- 셋째, 다양성의 원칙. 현재의 국제교류는 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진정한 국제교류는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함. 그리고 도민의 개방화된 마인드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임.
- 뿐만 아니라 자매결연이라는 편협된 국제교류가 아니라 경제,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가 진행되어야 함.
- 넷째, 실용성의 원칙. 국제교류는 제주의 진정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자립적 발전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그림 2>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교류 기본방향 및 원칙

제5장 국제교류협력의 발전 실천전략

제1절 체제 정비로 국제교류의 내실화 추구

1. 자치단체의 조직 정비 및 전문인력 배치

- 국제교류의 효과를 높여서 제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직 정비 등 국제교류의 내실화를 추구해야 함.
- 첫째, 국제교류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제주지역은 국제교류 업무를 각 분야별로 전문화할 정도의 조직이나 인원 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다른 업무와 중복해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아서 국제교류를 전담하는 인원은 적을 수밖에 없는 실정임.
- 그러므로 국제교류 업무에 비례해서 전문성을 가진 담당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자치단체가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외국자치단체를 고려해서 외국어가 능통하다든지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공무원들은 인사고과에 반영해서 국제교류를 전담하도록 하거나, 국제교류 업무의 비중을 많이 두도록 함.
- 또한 국제교류 업무를 공무원들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둘째는 국제교류 관련 부서를 신설하거나 기능을 확대해야 함.
-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교류를 영역별로 분석하여 교류가 가장 활발한

영역의 순으로 관련 부서를 신설하거나 기능을 확대하여 국제교류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

2. 국제교류의 충분한 예산 확보 및 계획적 예산 집행

- 현재의 국제교류는 제주의 여건과 발전방향을 고려하기보다는 대외적으로 자치단체의 홍보나 단체장의 성과를 치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음.
- 이런 소극적 국제교류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에 도움이 되는 국제교류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원이 확보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국제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국제교류 관련 예산을 공식적인 예산 항목에 편성하여 매년 일정부분의 예산을 확보해야 함.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교류의 방향을 정하고, 지역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제주 여건에 맞는 국제교류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함.
- 그리고 제주의 NGO 등과 연계해서 국제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호응도 얻고 예산측면에서 부담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3. 제주국제교류협력지원협의회 구성

가. 배 경

1) 여건 변화와 국제교류의 강화

- 세계는 사람, 상품, 자본, 정보가 국가의 경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활용해야 함.

- 중앙집권 하에서는 중앙정부가 국제교류를 주도하여 왔으나 이제는 지방이 중심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을 수행해야 함으로 국제교류정책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함.
- 제주가 지향하는 동북아의 거점도시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민·관의 협력하에 각 분야에 대한 국제교류사업을 강화하여야 함.

2) 제주의 열위적 요소 보완

- 특히 제주는 자본, 자원, 정보, 시민의식 측면에서 선진 국가의 자치단체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도 국제교류를 적극 활용해야 함.
- 국제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등과 같은 친선교류 뿐만 아니라 경제·통상교류의 강화가 필요함.

3) 국제교류의 민·관협력 체제 구축

- 기존 친선위주의 국제교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상호 이익 증진,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창의적인 사고, 역량 그리고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제주국제교류협력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의 국제교류 행정 역량의 한계를 보완해야 함.

나. 역 할

1)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행정의 역량 보완

- 민간부문의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교류 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구체적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함.
-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전략 및 경제·통상교류의 행정시책 개발, 행정규제 완화와 행정절차의 간소화 방안을 강구함.
- 국제교류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정비사항에 대한 정책자문을 수행함.
- 제주도 사회단체의 국제교류 대상국가 및 지역에 대한 추천을 자문함.

2) 남북교류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자문

- 남북화해 분위기를 지역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남북교류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분석함.
- 각국 정상회담의 개최, 4·3사건의 민족적 해결 등 제주의 '평화의 섬' 이미지를 활용한 제주-북한간 교류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을 제안함.
- 제주-북한간의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함.

3) 국제교류에 관한 정보 수집·분석

- 제주지역 발전과 연계된 실질적이고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외국 자치단체의 추진사례 등 모범적인 국제교류와 관

련된 각종 정보를 수집·분석함.

- 국제교류 사업의 방향 설정에 필요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관련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함.
- 국제교류 대상 국가의 산업·경제·문화 등 제 분야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함.
- 민간부문이 가지고 있는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화함.

4)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 민간부문과 학술기관의 국제교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개발하고, 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각종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수행함.
- 민간부문에서 행하는 각종 국제교류사업을 분석·검토하여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여부에 대해 심의함.
- 제주도의 국제교류에 관한 외부 지원세력과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함.

5) 지역주민의 세계화 선도

- 도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 외국인 및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국제예절의 함양 등 도민의 세계화의식 제고를 위한 각종 의식개혁 프로그램을 개발함.

4. 제주국제교류재단 설립

가. 배 경

1) 교류사업의 일원화 요구 증대

- 국제교류는 경제, 행정, 문화, 교육 분야 등에서 다차원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업이므로 현재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제교류 관련 유사 사업이나 조직들의 재정비가 필요함.
- 제주에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국제교류 사업들의 중복성을 막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국제교류사업의 일원화가 필요함.
- 관 주도의 국제교류 보다는 민간 중심의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되려면 국내외 교류사업을 총괄·집행·평가는 별도의 조직 설립이 필요함.

2) 국제교류 사업의 실효성 제고

- 기존의 국제교류 사업이 행정기관 주도로 이루어져 와서 실제로 주로 행정·인적교류에 치중되어 왔기 때문에 제주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분야 등에서 실제로 상호 이익을 공유하지 못해 왔음.
- 따라서 (가칭)「제주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현재 행정기관에서 국제교류의 역량을 보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교류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제주지역 발전에 실제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나. 역 할

1) 국제교류 사업의 선도적 역할

- 민간부문의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

서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핵심 조직 역할을 수행함.

- 국제자유도시와 세계평화의 섬 위상 정립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국제교류 사업의 발굴 및 정책 사업을 제언하고 수행함.
- 특히 제주도민들에게 실익이 되는 경제·통상교류에 역점을 두고 이와 관련된 국제교류 지역대상지 및 교류부문을 우선적으로 선정함.
- 각종 국제교류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제교류 관련 단체들 간의 파트너십 구축에 구심적 역할을 함.

2) 국제교류에 관한 정보 수집·분석

- 국제교류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아울러 국제교류 사업의 파급효과들을 홍보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 학술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함.
- 국제교류 대상 국가 혹은 지역에 대한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여러 분야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 및 교환함.
- 민간부문에서 실행되는 각종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국제교류 관련 DB를 구축함.

3)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 민간부문과 학술기관의 국제교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각종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수행함.

4) 국제기구들과의 네트워크 협력체제 구축

-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하여 국제교류의 거

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제주에 국제기구의 유치 사업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 세계평화, 그리고 세계자연유산 등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함.

5) 남북교류사업 발굴 및 사업추진

-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지방자치단체로서 각종 남북교류 사업 발굴·시행하여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함.
- 제주의 ‘평화의 섬’ 이미지를 활용한 제주-북한간 교류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사업을 실행함.

6) 세계시민의식의 고취 및 함양

- 도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국제사회 및 지구문제에 대한 의식 함양 등 도민의 세계시민으로서 의식 고취 및 함양을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함.
- 선진국 시민들과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사업을 실행함.

다. 조직 및 운영

- 국제교류의 효율성, 다양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칭)제주국제교류재단이 민간부문 중심의 조직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설립 초기에 예산 및 인력 확충에 문제가 있어서 민·관 협력체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가칭)제주국제교류재단의 운영은 민간 부문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함.
- 민·관 협력체제의 (가칭)제주국제교류재단은 장기적으로 순수 민간

단체로 변화할 필요성이 있음.

- 기존의 유사 조직(특히 제주국제화 장학재단)을 (가칭)제주국제교류 재단에 통폐합하여 예산 확보 및 업무의 효과성 증대를 꾀할 필요성이 있음. 즉, 도민의 국제화 및 국제교류 관련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가칭)제주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국제화 및 국제교류 관련 단체들의 통폐합이 바람직함.

5. 글로벌화를 주도할 인재 육성사업

가. 국제화·세계시민 교육 강화

- 초·중등 및 대학교육 과정에 평화교육 및 국제화·세계시민교육 관련 과목을 포함시키고, 대학교의 국제통상 및 국제교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평생교육원 등에 국제화·세계시민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함.
- ‘국제화 인재육성 기금’을 조성해 청소년을 외국의 학교에 유학시키거나 또는 방학을 이용해 외국의 가정에 홈스테이(Home Stay)시키거나, 또는 청소년의 국제교류를 위한 제주교환프로그램(JEP : Jeju Exchange Program) 개발 등에 지원함.
- 청소년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하여 국제 이해 및 국제 문화 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가칭)‘아시아태평양청소년회의’를 개최함.

나. 외국어 서비스 및 외국어교육 강화

- 행정기관의 외국어서비스 강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범위 안에서 영어 공문서 접수 및 제공, 영문판 홈 페이지 관리관 도입, 영어 안내 및 영어 홍보·자문관을 설립함.

다. 교육규제자유지역화(교육국제자유도시화)

- 제주를 ‘교육규제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학교의 설립·운영, 교원의 채용,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철폐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함.
- 외국대학 법인 설립 가능토록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인가, 대학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학점 인정, 입학자격, 학생 선발, 교원자격·임용 등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함.
- 외국대학을 유치하여 국제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대학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함.

라. 교육기관 특성화 유도

- 도내 대학에 ‘국제대학’ 또는 ‘국제대학원’을 신설하여 국제이해교육, 외국어교육, 국제교류 및 통상진흥 교육을 확대함.
- 국제전문 대학원 유치, 국제전문기숙학교 설립, 기타 단기 전문 국제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제교육 복합지구를 조성하여 경제적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동북아의 ‘지식 자본’(Knowledge Capital)의 중심지로 성장함.

마. 국제화 전문교육기관 육성

- 영어교육, 문화관광교육, 국제이해교육 등과 같은 (가칭) ‘제주 맨파워 21 교육 사업’ 등을 시행하고, 제주 출신 인력을 DB화 하여 국제화 교육에 봉사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인력을 관리함.
- 국제교육 특성화를 위한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고, 관광과 해양 그리고 아열대식물, 국제이해교육, 외국어교육, 국제교류 및 통상진흥 교육 등에 대한 세부 인력양성교육을 마련토록 함.

6. 내향적 국제화 기반 구축

- 외국과의 국제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내향적 국제화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임.
- 따라서 다음 몇 가지 방향을 검토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형편에 부합되는 전략을 개발하여 외국인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 일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외국인 친화적인 지역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발굴해야 함. 관내의 외국인들을 시정모니터로 위촉하는 제도, 민원실 내부 표시판은 물론 관내 도로망이나 안내표시판의 외국어 표기, 외국어판 각종 생활안내책자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함.

제2절 평화섬에 근거한 제주교류의 브랜드화

1. 국제평화교류 지원체계의 구축

- 무역·통상·평화·원조 등 전통적으로 중앙 정부에 의하여 추진되어 오던 분야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이른바 ‘지방외교’의 방식으로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평화의 섬’에 근거하여 다른 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수준에서 남북교류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만 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 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제한적 범위에서 대외문제 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적으로 이양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외자유치를 비롯한 국제통상협력, 평화교류·협력 업무와 외국인 출입국 및 생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부서(室 또는 局 단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지방외교 정책 및 외교활동은 특히 전문적인 지식과 유창한 외국어 구사능력, 국제적 감각과 외교력을 필요로 하므로 조직 내에서 가장 우수한 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능력 있는 외부 인사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인사제도를 마련하고 도내 거주 외국인과 외국생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교류·협력의 필요성이 큰 해외 지역에는 해외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해외 주재관을 파견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과의 업무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소속직원을 파견하거나 현지인을 채용하여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사무소와는 별도로 외국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외국의 지방정부에 해외 주재관을 파견하고 있음.

- 해외 사무소나 해외 주재관의 임무는 해당 지자체와 외국의 지자체 간의 업무 연락, 주재국 및 지역의 동향 보고, 특정 프로젝트의 추진, 어학연수, 본국 방문단의 안내와 통역, 해외 시장개척 및 외자유치 활동 지원 등 다양함.
-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외교)정책과 국제협력에 관한 법·제도적 지원체계가 미흡한 상황을 면하지 못하고 있음.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심한 편임.
- 지방정부가 외국의 주요 인사를 초청하거나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부처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 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정부 차원의 문제점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대외적 활동에 관한 자치법규가 정비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국제화 업무 관련 전문성도 크게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이와 관련하여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Korea Local Authorities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Relations; KLAFIR)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평화를 중심으로 국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협력 네트워크로서 (가칭)‘제주국제(평화)교류협력지원협의회’와 ‘제주국제(평화)교류재단’의 설립·운영을 모색해야 함.
- 제주국제(평화)교류협력지원협의회는 지역주민·민간기업·시민단체·대학 및 학술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산·학 협력기관으로 설립할 수 있을 것임.

- ‘제주국제(평화)교류재단’은 민간의 해외교류 증진과 조정, 외국의 단체와 국제기구와의 제휴 및 교류 등의 진흥, 국제회의 등 국제교류 사업의 기획·유치·운영·홍보·선전, 경제·통상교류의 촉진, 외국 유학생 및 연수생의 상호 교류, 외국인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생활상담, ‘국제교류기금’의 조성 등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함.
- ‘세계평화의 섬’인 제주특별자치도의 평화교류는 일반적인 자매결연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외교와는 달리 제주특별자치도가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국제교류를 구상하고 정책을 실천하는 방식이어야 함.
- 그리고 지역 주민과 지역 주민들이 주체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지는 일종의 ‘민간외교’ 활성화를 통하여 민간 부분의 자발적인 교류를 추진해야만 할 것임.

2. 다문화 공생사회의 구현

: ‘외국인과 함께 사는 평화의 섬’

- 제주도가 국제평화교류에 나서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국제화/세계화를 이루어야만 함.
- 따라서 도민들로 하여금 열린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고 제주도를 다문화 공생사회로 만드는 것이 평화도시 네트워크의 구축 및 평화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봄.
- 도민외교의 국제화를 통하여 외국의 문화를 수용하고 이질성을 이해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이를 통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 배우자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공생할 수 있는 문화적·환경적 토대가 구축되어야만 함.

- 다문화 공생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외국어 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국제이해 및 인권교육에도 힘써야 한다. 의료·교육 분야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제주 거주 외국인들이 생활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해야 함.
- 특히 최근 제주도민과 외국인 간의 국제결혼의 사례가 많아지면서 급증하고 있는 이주여성 및 이주여성 가족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배려가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이들과 함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교육과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함.
- 제주도를 도민과 외국인들이 공생하는 다문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인들도 하나의 주체로 참여하여 함께 지역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도청과 도의회를 포함하여 도정에 대한 외국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지방정치에 대한 외국인의 참여를 활성화 하여야 함.
- 특히 정주외국인들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주민투표권과 지방 선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유도하고, 그 밖의 외국인들도 제주 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널리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함.
- 도 차원에서 외국인 단체들과 외국인에 대한 지원 및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과의 공동 사업을 통하여 ‘제주공생사회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임.

3. 남북 평화네트워크의 활성화

- ‘세계평화의 섬’ 지정은 제주도로 하여금 남북 화해협력을 위하여 보

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남북관련 회담이 개최되어 왔으며 3차례 이루어진 제주도민의 북한 방문 사업과 함께 감귤·당근 등 제주도 농산물의 대북지원을 통하여 남북관계 개선 및 화해협력에 큰 기여를 해 왔던 것이 사실임.
- 특히 2003년에는 남북화해와 통일 한마당 잔치로 ‘민족평화축전’이 개최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제주도의 위상을 다지는 데 기여한 바도 있음.
- 세계평화의 섬 지정 이후 마련된 17대 실천사업을 보면, ‘감귤보내기 운동’, ‘민족평화축전 개최’ 그리고 ‘남북 장관급·군사당국자 회담의 제주개최’ 등 지금까지 전개되어 왔던 남북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준에서 사업계획이 마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수준의 실천사업을 통하여 제주도를 ‘남북 평화네트워크’의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고 봄.
-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대북 교류·협력 사업이 정부 차원의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을 때에도 민간 및 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대내·외적 변수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남북 대화 및 교류의 장소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통일 과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4. 동북아 평화 네트워크의 구축

가. 평화도시 네트워크 구축의 의의

- 한반도 평화체제 및 동북아 평화협력의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접근도 물론 중요한 과제가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지역 및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지자체 차원의 평화노력임.
- 다시 말하면 ‘아래로부터의 평화’ 추구를 통해 국제적 공감대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어지는 것이 ‘평화지대’(peace zone) 또는 ‘평화도시’(peace city) 프로젝트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세계평화의 섬’ 전략이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임.
- ‘세계평화의 섬’ 전략은 따라서 전통적 의미의 군사안보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안보’(common security) 내지 ‘협력적 안보’(cooperative security)와 새로운 평화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음.
- 새로운 평화 패러다임은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국제적 연대를 필요로 하며 ‘평화도시’ 네트워크의 구축을 요구하게 되는 것임.
- 제주 ‘세계평화의 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평화도시’ 프로젝트는 대체로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음.
- 외국의 평화도시 추진 사례들을 보면 도시의 과거 전쟁의 경험 또는 평화와 관련된 국제회의 및 기구 등 역사적 사실을 간직하였거나 평화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여 축적된 평화도시의 이미지를 근거로 이루어져 온 것을 알 수 있음.
- 평화도시는 전쟁과 집단학살 등으로 인한 상처를 화해, 관용과 평화의 가치로 승화시키겠다고 하는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의 열망과 의

지를 담고 있는 것임.

- 평화도시 프로젝트는 단순히 과거의 아픔과 비극을 상기시키는 기념비적 사업만은 아니다. 제주 ‘세계평화의 섬’ 전략은 분단과 냉전체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남북이 화해와 평화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공동체를 구축하려는 거시적 전략으로 추진되어지는 것임.
- 따라서 ‘세계평화의 섬’은 평화협력을 통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미래지향적 기획인 것임.

나. 외국의 평화도시와의 교류협정 체결

- 현재 동북아 지역에서는 한국의 제주도를 비롯하여 파주, 철원, 고성, 의정부, 평택, 중국의 난징,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구라사키, 오키나와, 베트남의 하노이 등이 평화도시의 건설과 국제평화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표방하고 있음.
- 그러나 평화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평화문화의 확산을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평화기념물 및 기념공간을 통한 평화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 평화활동 및 평화교류를 위한 국제적 수준의 평화도시 네트워크 등이 필요하다고 봄.
-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 일본의 히로시마가 평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오키나와는 미군기지 문제로 그 당위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고 또한 지정학적으로나 역사·문화적으로 제주도와 유사한 상황을 보이고 있으므로 제주도는 우선 히로시마나 오키나와와 같은 일본의 평화도시들과의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 히로시마의 경우 ‘평화문화센터’를 설립하고, 평화도시 기념비, 평화기념 공원, 평화연구소 등을 평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오키나

와의 경우는 현청에 ‘평화·남여공동참획과’라는 평화사업 관련 부서를 설치하고 ‘평화의 초석’, ‘오키나와평화상’, ‘평화기념자료관 관리운영’, 그리고 ‘헌법보급계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또한 히로시마와 오키나와에서는 매년 시장과 현지사가 직접 ‘평화선언’을 작성하여 낭독하는 행사를 가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로서는 평화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국제교류활동을 위한 가장 보편화되고 공식적인 방식인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자매결연의 방식은 지역과 지역의 문화교류를 비롯한 인적·물적 교류를 망라한 종합적인 교류의 형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에 바탕을 두고 행해지는 교류의 방법임.
- 반면에 우호교류 협정은 자매결연 방식과는 달리 특정 분야의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으로서, 양 지역간의 행정적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협정이나 문화예술, 체육, 청소년 분야, 경제·통상협력, 무역·투자 분야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특별히 평화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양 지역간의 평화교류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에는 자매결연 방식에 앞서서 ‘우호교류협정’ 체결을 모색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봄.
- 이 경우 중요한 것은 교류 당사자간 협정문에 평화관련 의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류협력의 목적을 보다 확실하게 해 두는 것임. 이와 함께 제주도로서는 이와 더불어 지난 해 가입한 ‘평화사절도시 국제협회’에 보다 열심히 참여하고 ‘세계평화연대도시 시장회의’에의 가입도 적극 추진함으로써 다자간 평화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써야 할 것임.
- 세계평화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 상호간의 교류·협력을 증대하고 도

시와 시민단체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평화도시 네트워크의 구축 사업은 제주도의 세계평화의 섬 추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봄.

- 제주도는 동북아, 또는 범위를 넓혀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임.

다. 평화기관·단체 상호간 국제적 네트워크의 구축

- ‘평화기관·단체’란 평화를 연구·실천하면서 국제평화교류·협력을 추진하는 연구기관, 대학,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를 말하며, 이들 스스로 국제평화교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일반 시민이 참가하고 협력하기 쉬운 환경을 갖추어 나가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내 평화기관·단체의 국제교류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들이 추진하는 선도적인 사업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여 그 성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만 함.
-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범도민실천협의회, 제주평화연구원, 제주 4·3 연구소, 4·3 평화공원, 제주평화통일포럼 및 도내 대학·연구기관 등 평화기관 및 단체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각 해외 교류·협력 파트너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평화연구를 비롯한 평화활동이나 평화사업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평화기관·단체는 스스로 또는 제주자치도와 서로 연계하여 외국의 평화기관·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평화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제주지역의 평화단체들은 예를 들어 일본 오키나와에서 활동하고 있는

NPO 평화협력센터(Okinawa Peace Assistance Center; OPAC)⁴⁾와 같은 민간단체와 상설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평화연구의 경우는 제주평화연구원 및 제주대 평화연구소, 평화교육의 경우는 제주대학교를 비롯한 각급 교육기관 및 평생교육시설, 평화봉사실천 및 교류의 경우는 범도민실천협의회를 비롯한 민간 평화단체가 중심이 되어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함.
- 특히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반이 되는 주변 국가의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제주평화연구원(Jeju Peace Institute; JPI)으로 하여금 평화포럼을 개최하고 국제적인 평화연구·교육 활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하도록 함으로써 미국 평화연구원(The US Institute of Peace; USIP), 히로시마 대학의 평화연구소(Institute for Peace Institute, Hiroshima University), 오슬로 평화연구소(PRIO), 그리고 하와이 동서문화센터(EWC) 등에 견줄 수 있는 대표적 평화연구기관으로 육성하고 국제 평화연구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해야 함.

라. 유엔평화활동센터의 설립·운영

-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방부와 외교통상부, 경찰청 등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적 안보와 유엔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평화활동(peace operation)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

4) ‘오키나와 평화협력센터’(OPAC)는 오키나와의 기지문제 해결과 평화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NPO)임. OPAC는 평화로운 아시아의 건설을 목표로 기지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분쟁을 근절하며 평화구축을 위하여 활동할 수 있는 인재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외국의 연구기관 및 인력과의 교류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연구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OPAC는 특히 청년인재 육성을 중심으로 시민교육 사업에 주로 몰두하면서 기지문제에 대해서도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동 티모르(East Timor)에서 선거지원 감시활동을 수행하는 등 국제적 협력활동에도 참여하고, 나아가서 국제평화를 지향하는 평화단체들과의 교류 네트워크를 통하여 그 활동과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OPAC는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의 오키나와 지부와 연계하여 인재육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여 개 민간기관·단체들과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고 함.

엔 평화활동센터'(UN Peace Operation Center; POC)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제주평화연구원을 중심으로 POC 설립을 위한 기초 조사 및 로드맵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내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법·제도적 근거를 정비할 예정으로 있다고 함.
- POC는 그동안 군 위주로 전개되어 온 '평화유지활동'(peace-keeping operation)을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평화지원 활동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제적인 평화협력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임.
- 구체적으로 POC는 국내외 군·경, 공무원, 민간 개인, NGOs 등 평화활동 참여자들에 대한 교육과 활동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제주도에 POC가 설립되면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제주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적인 평화 네트워크 구축에 큰 기여를 하게 되리라고 봄.

5. 지방자치단체 국제협의체 활동 및 국제평화회의의 활성화

-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일찍이 국제협력에 눈을 돌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 인권보장, 인종차별 철폐, 긴장완화와 평화 건설, 남북통일의 기반조성, 행정역량과 민주주의의 강화, 인도적 원조와 빈곤 퇴치, 건강 증진과 사회개발, 문화교류 등의 영역에서 국제협력을 추진해 왔음.

- 이들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세계평화와 인권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임. 특히 각국의 지자체들은 여러 국제적 지방자치단체 협의체를 결성하여 국제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중임.
- 제주도는 현재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아태관광협회’(PATA), ‘미주여행업협회’(ASTA), ‘한미경제협의회’(KUSEC), ‘동북아 자치단체 연합’(NEAR) 등 국제협의체에 가입해서 활동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평화사절도시 국제협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eace Messenger Cities)⁵⁾에도 가입하여 국제적 평화협력 활동에 관심을 보인 바 있음.
- 그리고 제주도는 우리나라의 부산·전남·경남, 일본의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야마구치 등과 함께 정기적으로 ‘한일해협 지사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발리, 해남성, 오키나와, 카나리아군도, 사우던섬, 잔지바르, 하와이 등과는 ‘섬관광 정책포럼’(ITOP Forum)을 통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음.
- 따라서 제주도로서는 이러한 국제협의체 및 회의체를 비롯하여 ‘세계평화의 섬’ 지정을 계기로 그 역할 제고가 요청되고 있는 ‘제주평화포럼’(Jeju Peace Forum)의 활성화를 통하여 보다 집약적으로 평화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지자체간 정보와 기술 교환을 장려하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목적으로 창설된 ‘지방자치단체 국제연합’(International Union of Local Authorities; IULA)과 ‘국제자매·교류도시연맹’(UTO), 그리고 1982년 히로시마의 주도로 결성된 ‘세계평화연

5) 1986년 ‘국제평화년도’(International Year of Peace) 당시 국가간 평화 및 이해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유엔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온 전 세계 62개 도시들이 ‘유엔 평화사절도시’(UN Peace Messenger Cities)로 선정되었으며, 이들 도시 대표들이 1988년 9월 8일에 베르딩(Verdun)에서 회합을 가져서 평화로운 세계건설을 위하여 협력하기로 한 다음 1996년에는 ‘평화사절도시 국제협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eace Messenger Cities)를 창설한 바 있음. 현재 이 협회에는 우리나라의 수원과 제주를 포함하여 모두 89개 도시들이 가입되어 있음.

대도시 시장회의⁶⁾에의 가입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다. 평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1) 평화교육의 강화 및 제주청소년 교환프로그램(JEP) 등의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및 각급 교육기관 등은 평화교육 및 국제평화교류에 관한 연구·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평화교류 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하는 인재의 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및 각급 교육기관 등은 국제평화교류에 있어서 국제이해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고 국제이해에 관한 교육 및 평생교육을 추진하며 국제평화교류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홍보 및 계발 활동을 추진해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평화연구원, 범도민실천협의회 등이 상호 협력하여 평화교육 및 평화교류 관련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홈스테이, 통·번역, 한국어 지도, 문화소개, 사업협력, 국제이해 자문, 평화교류 사업의 기획·운영 등 각 분야의 평화 전문인력의 육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는 특히 제주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국제사회에 대응하고 세계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청소년 교육 및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제화인재육성 기금’을 조성·활용해 청소년을 외국의 학교에 유학시키거나 또는 방학을 이용해 외국의 가정에 홈스테이(Home Stay)

6) ‘세계평화연대도시 시장회의’는 1991년 ‘카테고리 II’의 자격으로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민간기구(NGO) 위원회에 등록된 바 있으며 1994년에는 CONGO(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적 지위를 갖는 민간기구) 회의에도 참석하기 시작했음.

시키거나, 또는 외국의 청소년을 초청하여 교육·연수 사업을 실시하는 국제교류 사업인 ‘제주청소년 교환프로그램’(Jeju Exchange Program; JEP)의 개발·시행 등에 지원해야 함.

- 청소년 국제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국제 이해 및 국제 문화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아시아태평양청소년회의’(가칭)의 개최 및 ‘제주국제청소년 평화 캠프’(Jeju International Youth Peace Camp)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함.
- 그리고 국제청소년 평화 캠프사업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네스코 국제 Work Camp’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2005년부터 제주도에 유치하여 실시한 ‘유엔대학 글로벌 세미나’(UNU Global Seminar)를 ‘동북아 대학생 평화캠프’ 사업으로 정례화 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평화활동가의 육성 및 평화교류단의 운영

- 제주도가 평화활동을 통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적 평화활동의 전개가 필요하게 됨.
- 특히 제주에 기반을 둔 평화봉사단체를 통하여 평화활동가를 발굴, 지원·육성하고 각종 평화 관련 활동을 통하여 평화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평화활동가들을 외국이나 국제적인 평화단체들과 연계하여 재난, 분쟁지역 구호 및 복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파견지역과의 문화교류사업을 통하여 평화의 섬 제주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임.
- 제주도는 일반 도민의 ‘세계평화의 섬’ 주체로서의 인식을 제고하고 민간(연구기관 및 평화단체)교류에 대한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모

색하기 위하여 ‘제주평화교류단’의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평화도시 네트워크의 상대 도시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평화 교류단 사업을 추진하되, 초기에는 지역적으로 가까운 일본의 평화 도시와 평화교류단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오키나와 및 히로시마 등이 제주평화교류단 사업의 우선적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 도민을 대상으로 단원을 모집하여 ‘제주평화교류단’을 구성하고 이들이 평화교류단 교류 지역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포함하여 평화 운동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평화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평화교류단 활동을 통하여 지역 내 평화단체 및 일반 도민들간의 평화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평화의 섬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평화교류단 활동을 통하여 일반 도민들이 평화를 실천하고 ‘세계평화의 섬’에 관한 홍보에 앞장서며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들과의 상호방문을 정례화 함으로써 세계평화의 섬 실천 사업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봄.

제3절 다차원적인 국제교류의 다양화

1. 교류지역의 저변 확대

- 지금까지 국제교류를 살펴보면 미국, 일본, 중국 등 선진국 일변도로 추진해온 것이 사실임.
- 이제는 그러한 편중된 시각에서 탈피하여 중국, 동남아시아의 국가

들 인도, 중동, 아프리카 지역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2. 교류분야의 다양화 도모

가. 경제분야 협력방안

- 국제교류를 통해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는 국제교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분야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함.
- 따라서 경제분야의 국제교류 협력 방안은 첫째, 양국의 지방정부는 지역상품의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상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해외 시장 개척과 상품 수출을 증대시키는 데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
- 둘째,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간 교류가 필요함.
- 먼저 경제단체의 상공회의소간 교류를 정례화하고 공동사업을 추진 하며 업종별 단체 중심으로 유기적인 교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업 종별 기업교류회의를 창설하여 정례화 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제주 생산물 판매의 다변화를 위한 해외무역시장 개척에 민관 이 협력해야 함.
- 민·관 합동방식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의 무역박람회 참가의 정례화, 그리고 해외교포 무역주재관 제도를 도입해야 함.
- 그리고 상대지역에 시장개척단 파견에 의한 수출입 유망 상품을 발 굴하고 향후 장기적으로 양 도시에 상설전시장 설치 및 양 지역의 대형 슈퍼마켓에 양 지역 생산품을 판매하는 상설코너 설치 등을 검 토할 필요가 있음.

나. 문화분야 협력방안

- 자매도시 내에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간에 문화·학술교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함.
- 공동문화학술회의의 개최, 교직원 및 학생, 시민단체의 인적교류, 공동연구·개발과 같은 학술교류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대학, 학술단체, 문인·화가 단체, NGO단체 등이 국제문화학술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또한 지역대학과 연구소의 국제관련 전문가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문화교류 요원으로 위촉하여 자매도시와 지속적인 문화학술 교류 및 국제교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그리고 국제회의, 세미나, 미술전, 연극 및 국제경기 등 친선행사를 개최하고 외국에서 행해지는 행사에 주민을 파견하는 것들을 모색함으로써 국제교류에 있어 문화교류의 발전적 방향으로 설정하고 상이한 문화와의 접촉에 의해 지역문화의 재인식, 지역동질성의 확립, 스포츠의 향상, 나아가서는 상호이해 및 국제감각의 습득 등의 효과를 얻으며 경제교류 등 지속적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게 됨.

다. 기타 교류분야의 협력방안

- 첫째, 국제교류의 추진과정 중에서 국제교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교류 대상지역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함.
- 국제교류의 추진 시 상대방의 관심사항을 우리 쪽에서 먼저 찾아 논의하고 왜 그들이 우리와 협력해야 하는지를 홍보하는 지혜가 필요함.

- 즉, 역지사지의 자세로서 그들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이 외에 국제교류 추진 시 일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서는 역사, 문화와 예술, 지역산업구조 및 경제규모, 정치행정체제 등을 살펴보고 제주특별자치도와의 공통성과 이질성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 둘째,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기관장의 의지와 지원이 없으면 실패하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전과 리더십임.
- 만약 지방자치단체장의 국제교류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거나 이 부분에 대한 이해와 추진력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실천전략을 내부적으로 수립하였다 할지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임.
- 셋째, 지방정치와 지방의회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함. 따라서 예·결산문제를 다루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도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평소에 인식시켜 이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진의지와 리더십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해와 지원이 국제교류의 추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아울러 지방관내의 주요 민간단체와 여론주도세력이 국제교류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국제화 마인드를 고취하는 전략도 함께 병행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지방차원의 시각과 국가차원의 시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양측 공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방에도 도움이 되고 국익에도 서로 도움이 되는 전략을 활용하여야 할 것임.

3. 교류주체의 다원화

- 21세기 사회구조의 모습으로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의 형성을 빼놓을 수 없음.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다양한 의미로 받아들여짐.
-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거버넌스는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한 통치 관리체제와 국정운영의 체제를 의미함. 정부-시민사회-시장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정부’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음.
- 국가의 문제해결과 정책결정이 전통적인 ‘정부’에 의해서만 완성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는 것임.
- 주민 및 민간단체의 참여가 최대한 극대화되어야 한다. 참여는 로컬 거버넌스의 처음이고, 중간과정이고 끝임. 따라서 참여의 확대 없이 지방의 국제화는 불가능함.

4. 민간교류의 선진화

- 국제교류 정책 및 사업의 추진이 기존의 관 주도에서 민간부문의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국제교류의 민간부문 활성화 및 선진화가 필요함.
- 기존 관 주도의 국제교류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과감히 벗어나 보다 적극적 참여가 요구됨. 따라서 선진외국의 사례처럼 민간교류가 활성화하는데 우선 도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 민간단체들의 적극적 참여활동 그리고 예산 및 인력 확충이 요구됨.
- 민간부문이 국내 혹은 외국과의 교류에 적극적 주체로서 참여와 활동을 해 나가야 하는데 행정기관의 직·간접 지원이 있으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됨.

- 민간교류 활성화 사업에 행정기관은 민간부문의 국제교류 관련 사업의 독립성과 자치역량을 갖기 전까지 예산·인력·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5. 국제기관과의 협력 강화

- 지방자치행정과 관련된 국제적인 기구가 많이 있으나 실제 이들 기구들을 십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국제기구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국제 활동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또한 각종 세미나, 심포지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변하는 시대에 대처하고, 국제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우리 국가의 위상제고는 물론 세계발전에도 기여해 나가야 할 것임.
- 오늘 우리는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익을 신장하는 데 있어 중앙, 지방할 것 없이 양자 간의 상호보완과 협력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무한경쟁의 국제화시대를 살아가고 있음.
- 지방정부단위에서의 문화, 학술, 경제협력정책 등을 통해서 중앙의 여러 가지 정치외교, 군사, 통상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함.
-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독자성과 자율성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오늘날 국가발전의 한 몫을 담당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함.

제4절 제주발전에 기여하는 실용적 국제교류

1. 상호실익(win-win)적인 국제교류 추진

- 기관장 상호방문 등 기관장 위주의 일과성적 자매결연을 지양하고 주민, 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자매결연단체 상호간에 시·군민의 날 등을 통한 문화, 예술, 학술, 스포츠, 관광교류 등 실질적인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해야 함.
-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한 교류사업을 기업 간 교류, 행정의 상호 벤치마킹 등 상호발전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교류에 초점을 맞추어 감으로써 상호간에 실익이 되는(win-win) 교류를 발전시켜나아가야 할 것임.

2. 외국자본 및 다국적기업의 사무소 유치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외국자본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국제자유도시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
- 제주특별자치도를 ‘역외금융센터’(Offshore Financial Center)로 육성함으로써 외국계 은행 및 금융거래 사무소들을 유치하고 다국적기업 등 외국기업의 제주 투자를 적극 유인함.

3. 제주산업의 국제화 전략 추진

- 제주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은 세계를 알고

세계를 무대로 한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런데 제주지역은 소기업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 기업은 해외시장의 정보 습득, 기업홍보, 시장개척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의 정보능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외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첫째, 해외통상 에이전트의 설치임. 도내 기업의 국제화와 사업기회를 확대하고 경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해외진출기업이나 KOTRA(한국무역협회) 같은 경제단체기관에 통상 에이전트로서의 기능을 의뢰하여 해외의 투자·기업·컨벤션 정보와 같은 현지산업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정, 산업정보를 제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둘째, 제주도의 해외 주재관 확대 및 활용임, 제주국제자유도시를 통해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제주의 투자여건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해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함.
- 셋째, 해외 제주상품전시판매관 설치임. 해외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상품상설전시판매장에 제주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전시함으로써 제주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해외진출의 거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넷째,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의 활성화임. 상담 및 투자알선, 해외시장 정보 획득 등 제주지역의 해외교역능력 배양 및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주도청, 상공회의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으로 구성된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하여 활용해야 함.

4. 국제교류의 블루 오션(Blue Ocean) 전략 추진

- 레드오션은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산업을 뜻하며 이미 세상에 알려진 시장공간인데 비해 블루오션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모든 산업을 나타내며 아직 우리가 모르고 있는 시장공간임.
- 기업들은 기존 수요에서 보다 큰 점유율을 얻기 위해 경쟁자를 능가하려 애쓰는데, 시장 참가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수익과 성장에 대한 기대치는 낮아짐.
- 이와는 대조적으로 블루오션은 미개척 시장공간으로 새로운 수요 창출과 고수익 성장을 향한 기회로 정의될 수 있으며 기존 산업의 경계선 바깥에서 완전히 새롭게 창출되는 경우도 있음.
- 제주지역에서도 국제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Blue Ocean 전략이 필요함.
-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를 지역발전의 전략으로 채택하여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제주가 국제교류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블루오션적 접근이 필요함.
- 예를 들면, 동남아지역 등은 제주의 제주특별자치도나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 제주지역이 이런 정책들에 대한 정책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자문해 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음.
- 인도주의적 차원의 구호활동을 전개하는 것임. 쓰나미에 대한 구호적 활동은 지역의 이미지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향후 국제교류에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선점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임.
- 특히 제주지역은 삼다수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은 제주지역에 대한 매우 긍정적 이미지를 심을 수 있을 것이고 향후 제주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5. 아시아 도서 공동협력 사업 추진

-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학적 특성을 감안하여 아시아 지역 섬과의 교류 확대를 강화함과 동시에 상호간의 Win-Win(상호실익)할 수 있는 공동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음.
- 첫째, 협력 도서간의 전세항공 노선을 개설하고 향후 수요 증대에 따라 정기항공노선으로 확장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음. 특히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크루즈여행 시장을 표적으로 하여 전세크루즈 루트를 실험적으로 개설하고 수요 증대에 따라 항공-크루즈 패키지 상품으로 확대함.
- 그리고 이러한 루트 개발을 위해 각 협력도서들의 공동 출자에 의한 도서국제관광기구를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임.
- 둘째, 관광정보 교류의 정기화임. 각 도서지역이 가지고 있는 관광관련 정보 및 관광개발의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관광정책에 대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나가는 것도 필요함.

제6장 요약 및 결론

- 제주가 21세기 세계화·개방화·정보화·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제주특별자치도로서 위상을 정립하여 동북아 거점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국제교류협력 활성화가 필요함.
- 본 장에서는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교류협력 시대에 국제교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와 관련하여 기본방향, 기본원칙 및 실천 전략들을 제시하고자 함.

1. 국제교류협력의 기본방향

-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의 국제교류 패러다임과 접근을 벗어나 국제자유도시와 세계 평화의 섬 구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실용적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하는데 기본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 국제교류에 필요한 조직, 인력, 정보, 자원 등과 같은 내부적 기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임.
 - 관 주도의 국제교류가 아니라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민·관 협력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임.
 - 형식적인 국제교류가 아니라 제주발전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함.
 - 제주는 세계 평화의 섬을 구현해 나가고 있으므로 국제교류는 평화·상생의 포용성을 발휘해야 할 것임.
- 그러므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방향에 기본을 두어 세계를 향한 실용적 국제교류의 내실화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임.

2. 국제교류협력의 기본원칙

-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를 향한 실용적 국제교류의 내실화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의 원칙들을 유지해야 할 것임.
 - 국제교류를 추진에 앞서 필요한 제반 요소들을 구비하는 준비성의 원칙을 가져야 함.
 - 제주가 국제자유도시, 세계평화의 섬, 특별자치도라는 지역적·세계적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차별화된 국제교류가 이루어지는 차별성의 원칙을 가져야 함.
 - 국제교류는 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와 더불어 다양한 사회주체들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국제교류가 이루어지는 다양성의 원칙을 가져야 할 것임.
 - 국제교류가 제주지역의 실질적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도록 실용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임.

3. 국제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

- 국제교류의 내실화를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천 전략들이 필요함.
 - 자치단체의 조직 정비 및 전문인력 배치
 - 국제교류 위한 충분한 예산 확충 및 계획적 예산 집행
 - 제주도국제교류협력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제주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 국제화를 주도할 인재 육성 사업 실행
 - 내향적 국제화 기반 구축 사업

- 세계평화의 섬에 근거한 제주국제교류의 브래드화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들은 다음과 같음.
 - 국제평화교류 지원체계의 구축 사업 실행
 - 다문화 공생사회의 구현을 위해 ‘제주공생사회 만들기’ 사업 실행
 - 남북 평화네트워크의 활성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
 - 동북아 평화 네트워크의 구축 사업 전개
 - 지방자치단체 국제협의체 활동 및 국제평화회의의 활성화
 - 평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다차원적인 국제교류의 다양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측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미국, 일본, 중국 등과 같은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동남아시아 및 인도, 중동, 아프리카 지역으로 까지 교류지역의 저변 확대가 필요함.
 - 행정, 경제, 문화, 역사, 친선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제교류의 다양화를 추진함.
 - 사회의 다양한 부문에서 교류주체의 다양화가 필요함.
 - 국제교류에서 민간부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교류의 선진화가 필요함.
 - 국제교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관과의 협력 강화가 요구됨.
- 제주발전에 실제로 기여하는 실용적 국제교류의 추진을 위한 실천 전략은 다음과 같음.
 - 국제교류 당사국 간에 상호실익(Win-Win)적인 교류 추진
 - 외국자본 및 다국적 기업의 사무소 유치
 - 제주산업의 국제화 전략 추진
 - 국제교류의 Blue Ocean 전략 추진
 - 아시아 도서 공동협력 사업 추진

《 참고문헌 》

- 김부찬·양덕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수준 진단 연구: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 연구』 제7권 제3호. 2007.
- 김위찬, 『블루오션 전략』, 서울: 교보문고. 2005.
- 김철홍, “한·중 지방정부간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정치·정보연구』 제5권 제1호. 2002.
- 김판석,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발전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2권 제4호. 2000.
- 박수영 외. 『지방의 도약』, 서울: 홍문사. 1995.
- 박용길, “국제화와 지방정부의 대응.” 『한국행정연구』 제12권 제2호. 2003.
- 박제훈, “동북아 지역경제권과 동북아공동체.” 『사회과학논평』 제22호. 2002.
- 박진규, “우리나라 국제 청소년 교류 현황과 교류유형 탐색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1권 제3호. 2004.
- 안영훈, “지방의 국제교류 협력망 구축을 위한 실천적 방안.” 『21세기 지방의 비전과 전략』 시도연구기관협의회 공동세미나. 2000.
- 안정주, “한·중 국제관광객 교류 증진 방안.” 『국제관광학술대회』, 한국관광산업학회. 2006.
- 양덕순, “제주특별자치시대의 공무원 역량 강화에 대한 제언.” 『제주발전연구』 제10호. 2006.
- 양덕순·강제상,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화 전략에 대한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제17권 제2호. 2007.
- 엄운섭,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 교류의 활성화 방안.” 『한국토지행정학회보』 제9권 제1호. 2002.

- 오성동, “한·중 지방정부간 국제교류의 새로운 패러다임.” 『경영사학』 제22집 제1호. 2007.
- 이갑영,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평가와 전략.” 『지방행정』 제54권. 2005.
- 이정주·최외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효과 분석을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5권 제2호. 2003.
- 인천발전연구원, 『한·중간 통상협력의 현황과 수출진흥 방안 모색』 2001.
-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2002.
- 제주특별자치도, 평화협력과 『내부자료』 2007.
- 최낙필, “지방분권시대의 지역산업 육성전략.” 『산업경제연구』, 제18권 제1호. 2001.
-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지방자치단체 국제자매결연 현황』 2004.
- 황영주, “지역여성 국제교류: 여성 연대성의 실현.”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4집 제1호. 2006.

□ 부 록 □

설 문 조 사 표

ID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 방향 및 전략 구상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에 대한 실천전략 연구’에 관한 과제를 의뢰받아 연구수행 중에 있습니다.

제주지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자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주만의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세계화시대’에 사람, 상품, 자본,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함으로써 제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바로 세계와의 교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에 대한 도민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향후 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응답에는 정답이 없으며, 읽고 느끼시는 대로 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8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소 바쁘시더라도 더 나은 제주의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하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2월

제주발전연구원장 허 향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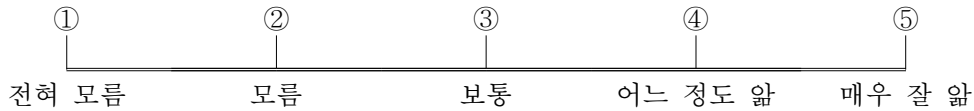
연구책임 : 고 승 한 박사(☎726-6145)

본 설문조사에 대한 의문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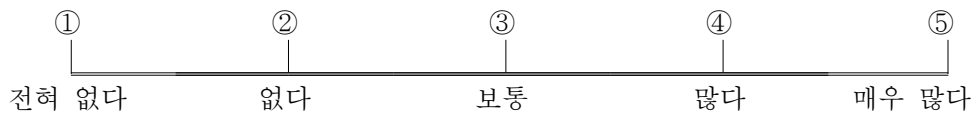
☎ 제주발전연구원 사회조사센터 최 영 근 연구원(☎ 726-7403)

I. 국제교류의 인지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생각하시는 항목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I-1. 제주특별자치도는 11개국 18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등 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I-2. 선생님께서는 외국 지역과의 ‘국제교류’에 참여해 본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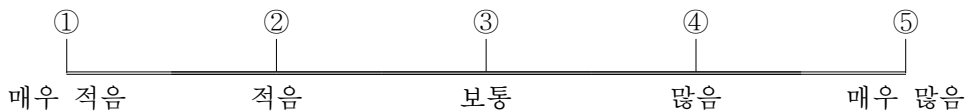
☞ 아래문항(I-2-1)에 대해서는 많다고 답하신 분(④, ⑤)만 답하십시오

I-2-1. 선생님께서는 과거 주로 어떤 영역에서 ‘국제교류’에 참여해 보셨는지 우선순위로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① 행정·인력 교류 ② 경제·통상 교류 ③ 학술·예술 교류
- ④ 문화교류 ⑤ 청소년 교류 ⑥ 기타 친선 교류
- ⑦ 기타()

I-3. 제주지역에서 민간부문의 국제교류사업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래문항(I-3-1)에 대해서는 많다고 답하신 분(④, ⑤)만 답하시오

I-3-1. 선생님께서는 어떤 영역에서 민간부문의 교류사업이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순위로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① 행정·인력 교류 ② 경제·통상 교류 ③ 학술·예술 교류
- ④ 문화교류 ⑤ 청소년 교류 ⑥ 기타 친선 교류
- ⑦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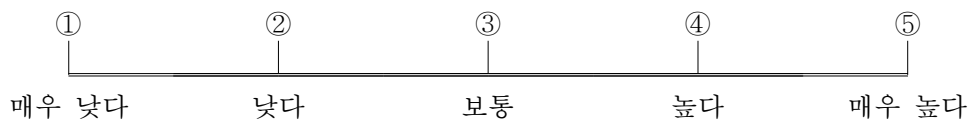
☞ 아래문항(I-3-2)에 대해서는 적다고 답하신 분(①, ②)만 답하시오

I-3-2. 선생님께서는 민간부문의 국제교류사업이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순위로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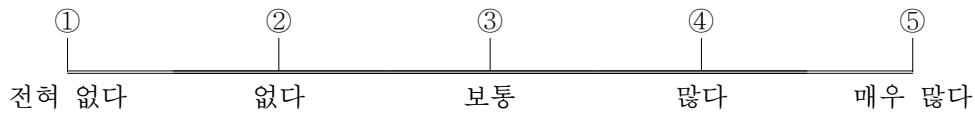
1순위() 2순위()

- ① 해당지역의 정보 부족 ② 예산 부족 ③ 추진의지 부족
- ④ 자치단체의 지원 부족 ⑤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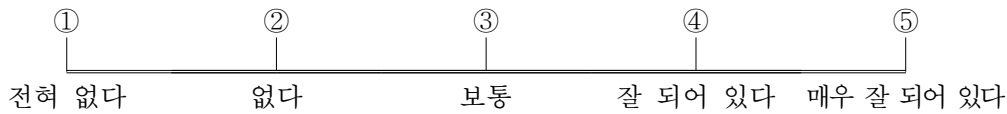
I-4. 향후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데 있어 국제교류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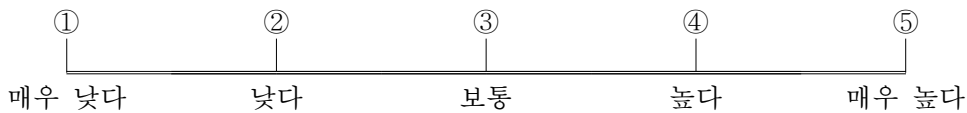
II-5. 제주도가 외국지역과 자매결연지역을 선정하는데 있어 시민단체나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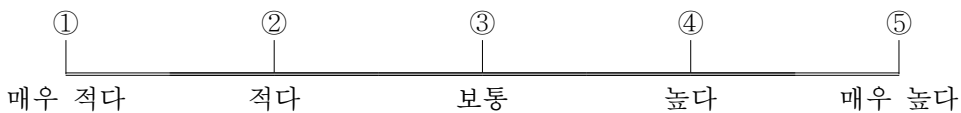
II-6. 제주도가 국제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민간과의 협력관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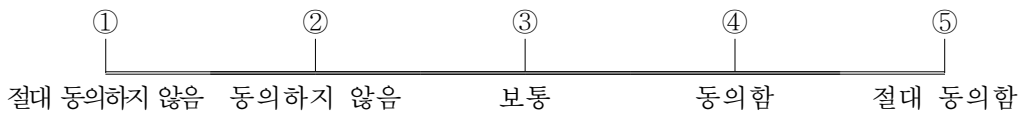
II-7. 제주도민들이 국제교류를 위한 개방마인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II-8.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교류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II-9. 외국 지역과의 국제교류가 제주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기관장 방문 등 형식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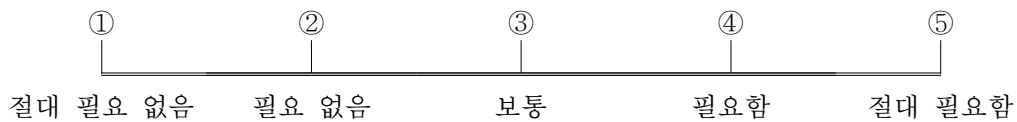


II-10.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를 통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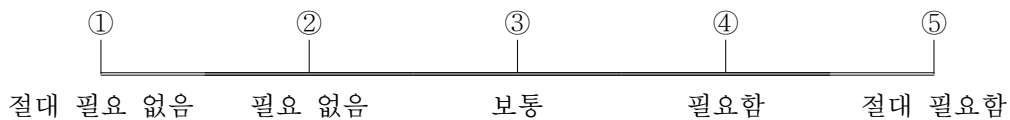
성 과	전혀 없음	없음	보통	많음	매우 많음
	①	②	③	④	⑤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제주도의 이미지 제고					
제주도민의 국제화 수준 향상					
지역의 정체성 인식 기회 제공					
인류평화공동체 구현에 기여					

III. 향후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생각하시는 항목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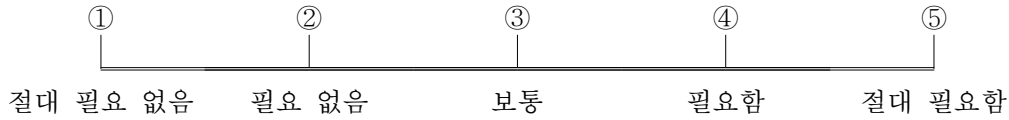
III-1.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직 신설, 전문인력 양성 등 내부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II-2.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 주도에서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고 도민의 마음이 개방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Ⅲ-3.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는 제주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Ⅲ-4. 향후 국제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선순위로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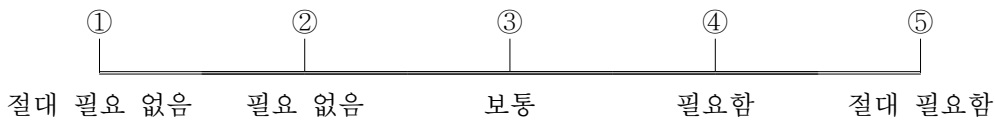
1순위() 2순위()

- ① 행정·인력 교류 ② 경제·통상 교류 ③ 학술·예술 교류
 ④ 문화교류 ⑤ 청소년 교류 ⑥ 기타 친선 교류
 ⑦ 기타()

Ⅲ-5.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는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방자치단체 ② 지방의회 ③ 시민단체
 ④ 지역대학 및 연구소 ⑤ 자치단체+민간 ⑥ 기타()

Ⅲ-6. 국제교류에 있어 행정역량을 보완하고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민간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제주국제교류협력지원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V-5. 선생님은 앞으로 행정기관이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가칭) '제주국제교류재단'과 같은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IV-6, 7문항으로) ② 아니오

IV-6. 그렇다면 (가칭) '제주국제교류재단'의 설립은 어떤 형태로 하면 좋겠습니까?

- ① 순수민간 단체 형태로 새롭게 설립
② 기존의 유사 재단(특히 제주국제화 장학재단)의 기능·확대 개편
③ 제주국제화 장학재단이 제주국제교류재단으로 통폐합
④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IV-7. 선생님은 (가칭) '제주국제교류재단'이 설립된다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선순위로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① 행정·인력 교류 ② 경제·통상 교류 ③ 학술·예술 교류
④ 문화교류 ⑤ 청소년 교류 ⑥ 기타 친선 교류
⑦ 국제교류 관련 조사연구
⑧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 다음은 인구통계적 사항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세 이상

3. 귀하의 직업은?

- ① 농·수·축산업 ② 자영업 ③ 생산/기술직
④ 사무/판매/서비스직 ⑤ 공무원 ⑥ 경영/전문직
⑦ 전업주부 ⑧ 학생 ⑨ 무직
⑩ 기타()

4. 귀하의 학력은?

- ① 중졸 이하 ② 고졸(중퇴 포함)
③ 대졸(재학·중퇴 포함) ④ 대학원 이상

5. 귀하의 출신지는 ?

- ① 제주도 ② 서울시 ③ 경기도 ④ 강원도
⑤ 충청도 ⑥ 경상도 ⑦ 전라도 ⑧ 외국

-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연 구 진

김 부 찬 (제주대학교 교수)
양 덕 순 (제주대학교 교수)
고 승 한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지방외교시대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인 쇄 일 2007. 12.
발 행 일 2007. 12.
발 행 인 제주발전연구원장 허 향 진
발 행 처 제주발전연구원
인 쇄 처 일신옵셋인쇄사(☎ 064-758-1500)

ISBN 978-89-6010-029 9 9333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無斷 轉載나 複製는 금합니다.

이 보고서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정책 연구비 일부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습니다.